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
-베트남인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응 웬 티 응 옥 후 엔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은희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

-베트남인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eaching Method of Korean hearer
honorification using drama

- Focusing on intermediate Vietnamese learners -



HANSUNG
UNIVERSITY

2024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응 웬 티 응 옥 후 엔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은희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

-베트남인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eaching Method of Korean hearer
honorification using drama

- Focusing on intermediate Vietnamese learners -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응 웬 티 응 옥 후 엔

응웬티응옥후엔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노정은 (인)

심사위원 김윤주 (인)

심사위원 이은희 (인)

국 문 초 록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 -베트남인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응 웬 티 응 옥 후 엔

본고는 베트남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상대높임법은 한국어 교육에서 필수적인 문법 요소로,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며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문법적·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상대높임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드라마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2장에서는 본고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정의와 유형을 설명하고, 외국인 학습자에게 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 중요한 교수-학습 요소를 분석하였다. 특히 상대높임법이 단순히 문법적 규칙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맥락과 화용론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

다. 그 다음으로 드라마가 언어 교육 자료로서 가지는 특성과 이점, 즉 실제 발화 상황과 사회적 관계를 생생하게 재현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의 비교·대조를 다루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상대높임법은 표현 방식과 결정 요인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는 종결어미를 통해 높임법을 실현하며, 화자와 청자의 관계, 나이,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선택한다. 반면 베트남어는 대명사, 동사, 그리고 어휘적 변화를 통해 상대높임법을 표현한다. 본 연구는 두 언어의 상대높임법을 비교·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를 통해 베트남인 중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사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상대높임법의 화용적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습자들은 대화 상대의 연령과 지위에 따른 종결어미 선택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이러한 문제는 상대높임법의 체계적 교육과 실제 상황에서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5장에서는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드라마는 학습자들에게 실제 발화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상대높임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분석하여 상대높임법의 다양한 사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교수-학습 설계를 제안하였으며,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단계로 구성된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이 드라마 속 인물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상대높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마지막 장은 본고의 연구에 대한 요약과 제한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하였다.

【주요어】 한국어 교육, 한국어 높임법, 베트남어 높임법,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 드라마 활용한 교육

목차

I. 서론	1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4
1.2.1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체계와 표현	4
1.2.2 영상 매체 활용한 높임법 교육 연구	5
1.2.3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상대높임법을 교육 방안 연구	6
1.3 연구 범위 및 방법	8
II.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의 이론적 배경	11
2.1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어 상대높임법	11
2.2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수-학습 요소	13
2.3 언어 교육 자료로서 드라마와 상대높임법의 특징	14
2.4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교수- 학습 방안	16
III. 한국어 상대높임법과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의 비교	22
3.1 한국어 상대높임법	22
3.1.1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결정 요인	23
3.1.2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실현 방식	29
3.2 베트남어 상대높임법	37
3.2.1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의 결정 요인	38
3.2.2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의 실현 방식	45
3.3 한국어- 베트남어 상대높임법 비교 대조	52
IV.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	59
4.1 조사 대상	59

4.2 조사 내용	60
4.3 조사 결과 분석	61
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	84
5.1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수 - 학습 원리	85
5.2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내용	87
5.3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수- 학습 모형	111
5.4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수업 지도안	117
VI. 결론	132
참고문헌	134
부록	138
ABSTRACT	

표 목 차

[표 1] 드라마를 활용한 시청각 교수법과 의사소통 교수법을 도입한 상대높임법 교수-학습 모형	19
[표 2] 한국어 상대높임법과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의 비교 대조	57
[표 3] 설문조사의 문항 내용	61
[표 4] 한국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	65
[표 5] 상황 제시를 통한 학습자의 한국어 상대높임법에 대한 지식	70
[표 6]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수-학습의 수업 모형	112
[표 7]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1차시	118
[표 8]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2차시	120
[표 9]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3차시	121
[표 10]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교안	122

그 립 목 차

[그림 1] 베트남 상대높임법의 표현 등급	45
[그림 2] 학습자의 TOPIK 급수	60
[그림 3] 한국어 공부 장소	62
[그림 4] 한국어를 공부하는 기간	62
[그림 5] 30대 의사와 60대 환자의 병원에서의 대화 상황	71
[그림 6] 30대 차장과 50대 과장의 회사에서의 대화 상황	72
[그림 7] 엄마와 딸의 집에서의 대화 상황	72
[그림 8] 교수와 학생의 식당에서의 대화 상황	73
[그림 9] 교수와 학생의 교실에서의 대화 상황	74
[그림 10]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 사진	78
[그림 11]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높임법	79
[그림 12]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제3과 일상생활 기본 문법	80
[그림 13] 요즘 가장 많이 보는 드라마	82
[그림 14] ‘눈물의 여왕’ 드라마의 포스터	119
[그림 15] ‘눈물의 여왕’에서 장인어른과 사위의 집에서의 대화	124
[그림 16] 홍해인과 시어머니의 대화	126

I. 서론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과 베트남은 각각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대륙에 위치하여, 전파된 시기는 다르지만 예전부터 둘 다 유교와 불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베트남이 경제 개방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이후, 한국과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인들 또한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한국의 문화는 노래, 드라마, 패션, 아이돌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한류라는 말로 통용되어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이렇듯 경제적인 관심과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점차 증가하였다.

문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교착어인 한국어는 고립어인 베트남어와 어순이 다르며, 조사와 어미를 활용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어 높임법은 한국인의 고유한 언어적 예의와 대인관계를 잘 드러내는데, 베트남어의 높임 표현 방법과는 다른 면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인들은 한국어의 높임법을 배우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높임 표현의 실수로 인해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¹⁾. 한편, 한국인 베트남어 학습자 또한 베트남어를 학습할 때 높임 표현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의 높임 표현을 그대로 대화 상황에 적용하여 직역하는 경우가 많아 자주 어려움을 겪는다.

이은희(2010:286)는 “한국어 높임법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반드시 익혀야한다”라고 서술했다. 이에 따르면 높임법은 대화 상대나 상황에 따라 정확히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들은 대화할 때 화자와 청자 및 발화하는 문장의 주체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적절한 높임법을 사용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

1) Nguyen Thi Phuong (2021:4)에서 인용하였다.

지해 나간다.²⁾ 이와 같이 높임법은 한국어 교육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 있는데,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 높임법의 습득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높임법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해당 논문들은 주로 베트남어 높임법과 한국어 높임법을 비교, 대조하거나 설문 조사를 진행한 후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법 오류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높임법에 대한 교육 방안을 마련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어 높임법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데 집중하여,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높임법 전체를 개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상황에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서 사용되는 상대높임법을 중심으로 연구하려 한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높임법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발화 상황에서 높임법을 사용할 때에는 나이, 상하관계, 친소관계 등 사회적 변인들도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언어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서 질서와 존비 의식이 공존하고 있다. 오늘날 베트남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질서 및 존비 의식은 한국 사회만큼 엄격하지 않지만, 여전히 예전의 유교 의식이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어 발화 상황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렇지만 사회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한국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높임법을 중심으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화자 간의 사회적 변인에 따라 나타나는 상대높임법 사용의 차이를 분석하고, 상대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적 변인에 대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화자의 인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려 한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높임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두 언어의 높임

2) 한신신 (2013:3)에서 인용하였다.

법을 비교·대조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높임법 사용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적 논의에 치중되어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흥미와 동기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높임법 교육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류는 모든 국가들에서 똑같은 방식과 같은 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문화적 욕구에 따라 선호되는 문화상품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다³⁾. 일본의 경우 한류는 가요로부터 시작하여 드라마와 영화로 옮겨 간 것에 비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영화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 몽골, 대만과 같은 국가들은 TV에서 한국 드라마 상영이 한류의 형성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다.⁴⁾ 베트남에서 한류의 확산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트남 내 한국 문화산업의 진출은 ‘드라마 → 영화 → 대중음악’의 순서로 전개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인기가 있는 한국 드라마를 활용하여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려 한다. 이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앞서 그 동안 드라마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교육 방안을 분석했던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였는데, 베트남에서도 OTT를 활용하여 한국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 학습자가 더 자연스럽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인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위해 한국 드라마 자막을 통하여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해당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베트남인 학습자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안을 제시하겠다.

3) 팜티타잉튀 (2010:3)에서 인용하였다.

4) 팜티타잉튀 (2010:3)에서 인용하였다.

1.2 선행 연구 검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의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려 한다. 한국어는 높임법이 매우 발달한 언어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어 왔고, 실생활에서 많은 화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문법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베트남어 또한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영향으로 높임법이 다각적인 시각으로 연구되고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다. 즉, 두 언어 모두 높임법의 중요성이 잘 인식되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국 각각의 높임 체계나 표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그것을 서로 비교한 연구의 수는 많지 않다.

한국어는 높임법이 매우 발달한 언어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거의 모든 화자가 이를 알고 문법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며, 한국어 교육에서도 높임법 교육이 매우 중요시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첫째로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체계와 표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중심을 두어 살펴보려는 영상매체 활용한 높임법 교육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 고찰하겠다.

1.2.1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체계와 표현

첫 번째로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체계와 표현에 관련되는 선행 연구는 남기심·고영근(1985), 이희성(2009), 이정복(2006), 이서란(2001) 등을 통해 이야기 할 수 있다. 남기심·고영근(1985)은 상대높임법을 “말하는 이가 특정한 종결어미를 씌으로써 말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이라 정의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상대높임법의 체계로서 4개의 격식체와 2개의 비격식체로 나누어 실현되는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학교 문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상대높임법의 등급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다. 주로 4등급, 5등

급, 6등급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주장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희성(2009)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 실제 생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대높임법은 4가지 화계로 충분함을 보였다.

이정복(2006)은 '사회적 요인', '경어법 전수', '참여자 효과' 등의 사회언어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언어 외적인 화용론적 조건들을 개념을 하려고 시도를 하였다.

이서란(2001)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높임법의 등급 선택 양상을 분석하고, 등급 간 전환 유형을 규명함으로써 상대높임법의 등급 체계를 재구성하였다.

1.2.2 영상 매체 활용한 높임법 교육 연구

영상 매체 활용한 높임법 교육에 관한 연구를 조정래(2007), 전지수(2005), 문아(2015)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정래(2007)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가 모두 영상을 매개로 하는 미디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언어 학습의 효용성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미디어의 특성상에서 드라마는 영화보다 구술성이 높고, 일상성이 더 농후하며, 공유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짧은 시간에 언어와 그 언어·문화·배경을 이해하려면 영화보다 드라마가 더욱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⁵⁾

전지수(2005)는 드라마를 활용하는 매체 이용 교육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드라마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둘째, 대본이 제공되어 이를 활용한 회화 수업 준비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만 있으면 학습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용을 정리하였다.

문아(2015)는 드라마를 비롯한 영상 매체를 활용한 언어 교육의 필요성이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음을 언급하며, 상대높임법에서 고려되는 문법적 및 사회적 요소가 드라마 내에서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

5) 왕단화 (2015:4)에서 참조.

였다. 또한, 향후 매체를 활용한 높임법 교육이 더욱 보완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1.2.3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상대높임법을 교육 방안 연구

1.2.3.1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의 체계와 표현

따티타잉땀(Ta Thi Thanh Tam, 2009), 응우엔티엔잡(Nguyen Thien Giap, 2000), 부티타잉흐엉(Vu Thi Thanh Huong, 2000) 등을 통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따티타잉땀(Ta Thi Thanh Tam, 2009)은 『베트남어 회화에 존대법(Lịch sử trong giao tiếp Tiếng Việt)』이란 책을 통해 예의 및 비예의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베트남어 대화에서 예의적인 용어를 꼭 사용해야 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본 책은 베트남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네 가지 대화 표현을 언급했다. 그것은 초대하는 말, 감사하는 말, 비난하는 말, 거부하는 말이다. 초대 및 감사하는 말은 예의적으로 표현하기가 쉽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초대하는 말이 성의가 없는 말로 보이며 많은 감사하는 말이 외형뿐인 말로 보인다. 비난 및 거부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잘못 쓰면 상대방의 명예와 자존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자기의 부족함을 보충하는데 도와주기 위한 비난하는 말이나 합리적, 감정적인 거부하는 말이 예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응우엔티엔잡(Nguyen Thien Giap, 2000)은 베트남어 화용에서 예의가 사회 표준이며 예의가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공동적 규칙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공동적 규칙이란, 베트남 사람에게 정(情), 의(意) 그리고 청자를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부티타잉흐엉(Vu Thi Thanh Huong, 2000)은 베트남어 예의에 대한 많은 연구를 기술했다. 예의의 개념은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며, 예절적 예의와 전략적 예의를 포괄한다. 예절적 예의는 청자의 사회적 품격을 존중하기 위해 존대적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략적 예의는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압박을 피하며,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미세하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1.2.3.2 베트남인 학습자의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 연구

쩐티하이하(2014), Ho Dac Quynh Trang(2016), 안경환(2002), 김혜련(2009), 임미경(2013) 등을 통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찐티하이하(2014)에서는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높임법을 대조·분석하였다.

Ho Dac Quynh Trang(2016)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높임법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한국어 높임법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베트남어의 높임 표현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였다.

안경환(2002)은 베트남어 경어법과 그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어에서 1인칭 및 2인칭 대명사, 친족 명사, 양상 어구 및 양상 조사를 중심으로 경어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어 교육에서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혜련(2009)은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공손 표현 양상을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에서는 두 언어의 공손 표현 방식에 대한 언어적 및 비언어적 특징을 분석한 후, 설문지를 통해 공손 표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조사하였다.

임미경(2013)은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친족 내 한국어 경어법 오류 양상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경어법을 3분 체계로 정리하고, 이를 베트남어 경어법과 대조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경어법 사용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임법의 체계, 사회 문화적 변인, 한국어과 베트남어의 높임법 대조 등을 통해 거시적인 논지를 실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미시적인 논지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드라마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실생활 속

에서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논문의 목적으로 삼으려 한다.

1.3 연구 범위 및 방법

1.3.1 연구 범위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학습자들은 초급단계부터 한국어 높임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드라마를 활용한 교육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대높임법을 인식하고 있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중 중급 단계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상대 높임 표현 실현 방식과 높임법의 사회 문화적 요인을 대조 및 분석하여 양국 언어의 높임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그 결과를 통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드라마 속에 한국어 원문과 베트남어 번역문을 대상으로, 한-베 상대높임법 대응 양상을 비교 및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 후 설문조사를 통해 어려운 점을 발견하고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텍스트로 구성된 교재에서 언어를 배우면, 학교나 회사 등의 발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화를 주로 선정하긴 하지만, 보통 짧은 대화만을 반복하여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다 긴 담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발화나 많은 문장을 학습하려고 할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재는 담화상황에서 등장인물이 많아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가 떨어지게 되어서 가급적 필요한 인물만 사용한다. 반면에, 드라마는 여러 사람이 등장해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화자와 청자 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많은 높임법 사용 상황을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를 공부하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이 연구를 통해 높임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드라마를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베트남어 간의 전반적인 이론적 비교·대조 연구는 그 동안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선행적으로 다루어졌으나, 한국어 상대높임법에 관하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매체를 토대로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어와 외국어의 상대높임법 연구에서 매체를 자료로 삼은 연구는 지금까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드라마라는 매체를 자료로 삼아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실생활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상대높임법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조금 더 가까이서 분석할 수 있고 학습자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할 수 있다.

1.3.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를 활용해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을 분석하고 대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드라마를 활용한 교육 방법을 통해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수업 교안을 작성해 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 및 상대높임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선행 연구를 살펴 본 후,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의 이론적인 배경을 다루어 보았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어 상대높임법과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대높임법 교수-학습 요소, 그리고 언어 교육 자료로서 드라마와 상대높임법의 종합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결정 요인에 대해 제시하고, 실현 방법인 4등급 체계에 대해 다루면서,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려 하고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의 결정 요인에 대해 제시하고, 실현 방법인 단어들의 대해 분석하면서 사회언어학적 관점을 접목하여 들여다본 뒤, 학습한 한국어와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을 토대로 둘을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상대높임법을 학습할 때 어려운 점을 밝히고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였다.

제5장에서 드라마 속에 있는 상대높임법 교육 내용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수업 교안을 작성하여, 상대높임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실제 수업 교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은 본고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밝히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II.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의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우선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려 한다. 첫째로 한국어 교육에서 상대높임법 교육의 의의를 정의하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수-학습 요소를 살펴보는 한편, 마지막으로 언어교육 자료로서 드라마와 상대높임법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1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어 상대높임법

상대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특정한 종결어미를 씌으로써 말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일컫는다. 종결어미는 그 높임의 정도에 따라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의 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종결어미를 각각 합쇼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라 한다. 이 밖에 해요체가 있어서 아주높임과 예사높임에 두루 쓰이고, 반말인 해체가 있어서 예사낮춤과 아주낮춤에 두루 쓰인다. 그리하여 해요체를 두루높임, 해체를 두루낮춤이라 한다.⁶⁾ 언어는 문법적 규칙을 기술하는 것과 동시에,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높임법은 언어의 문법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상대높임법에 관련되는 비언어적 요소들은 사회신분, 연령 관계, 부부지간, 성별 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은 정보 전달의 측면도 있지만 대인 관계 유지도 포함되어 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예절을 갖춘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고, 이 때 대표적인 방법이 높임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때 주체를 높이는 법을 주체높임법,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것을 상대높임법, 객체를 높이거나 특별히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법을 객체높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6) 남기심, 고영근. (2011). 『표준국어문법론』. 338p. 서울: 탑출판사.

이 중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상대높임법에 대해 허상희(2010:89)에서는 화용론적 측면에서 상대높임법은 문법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언어적 요소와 상황적 요소도 함께 갖추어야 성립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연구들에서 드라마 대본을 분석하여 친족 간 관계와 타인 간 관계에서 화자와 청자에 따른 상대높임법 사용 모습에 대해 언급하였다. 최근 국어에서 ‘하소서체’는 그 명맥만 간신히 유지되며 현대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하오체’와 ‘하계체’ 역시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문체로 볼 수 있다고 정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하계체의 사용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한 남기심, 고영근(1985)의 논의와 함께, 본 연구에서 다른 자료에서는 ‘하오체’는 ‘읍시다’ 한 가지 형태만 나타나고, ‘하계체’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현상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서는 상대높임법의 체계 전체를 교수하는 것보다는, 각 종결어미 항목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종결어미가 속하는 화계에 대한 정보를 화용적 관점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어를 학습할 때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는 기존 상대높임법에서 다루는 격식체와 비격식체 구분으로는 실제 사용법을 익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정복(2006:427)은 특정 언어공동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한국어 전체에 대한 상대높임법의 말 단계 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추상적 최대 체계’로서, 어떤 화자 집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상대높임법의 체계가 모든 개별 화자의 언어 사용을 포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도, 한국어 모어 화자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적 패턴을 드러내는 작업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특정 화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가 대체로 접하게 될 표준적인 언어 사용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언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높임법의 실제 실현 양상을 밝혀서 언어 사용을 위한 메타적 정보로서 학습자들에게 제시하려 한다. 각 화계는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존재한다기보다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고, 심지어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각 화계의 특성을

정의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각 화계에 속하는 종결어미들의 담화, 텍스트, 화용적 사용을 상세하게 다룸으로써, 상대높임법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하려 한다.

2.2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대높임법 교수-학습 요소

언어는 눈으로 읽는 글로 표현한 문어보다 귀로 듣는 소리로 표현한 구어가 일차적인 것으로, 실제에서도 훨씬 더 많이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⁷⁾. 한국어에서 소리로 표현된 언어는 고백, 설화, 대화 등으로 나누어지며, 그 중 대화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대화에서 관련된 인물들은 화자, 청자, 주제, 객체로 구분되며, 화자는 다양한 의향을 가지고 대화 내용을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 주제, 객체에 대해 적절한 존대 수준을 맞추어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대화의 특징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는 언어적 행위로, 이때 사용되는 문법적 범주가 바로 높임법이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대인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문법 현상으로서, 높임법은 언어와 글의 구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상대높임법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첫째,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높임법의 실현 원리와 실현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상대높임법은 한국어 원어민에게는 습득된 언어 규칙으로 익숙할 수 있으나,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어휘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적 표현을 실제 의사소통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대높임법의 실현 표현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자는 해당 문법적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학습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등급 결정은 한국어 문화권에서의 예의와 관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상하 질서에 따라 예의를 중시하는 사회로, 높임법 또한 다른 문화권보다 더욱 발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조금만 다르더라도 상대방에게 높임말을

7) 송덕유 (2016:57)에서 인용하였다.

사용해야 한다. 이는 서양 문화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교적 예의에 따라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상대높임법의 등급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예의와 관계를 반영하는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다.

서상준(1996:84)은 상대높임법의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요인들은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체계화하기 어려우나,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상대높임법의 사용과 등급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을 분류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대높임법의 등급 결정 요인은 크게 공적 요인, 사적 요인, 그리고 상황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 공적 요인: 화자와 청자의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포함한 개별 특성과 화자와 청자 간의 공적 관계(예: 연령, 직급, 선후배 관계 등).
- 사적 요인: 화자와 청자의 성격이나 평소 말투, 사적인 관계(예: 친구, 동창 등) 및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 상태.
- 상황 요인: 대화의 맥락에 따라 연설, 사회적 상황, 수업, 방송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

셋째,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제대로 학습하려면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 학습의 목적은 결국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높임법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때, 학습자들은 수업 외 시간에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부족해 실제로 자주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에서 상대높임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능력을 키워야 한다.

2.3 언어 교육 자료로서 드라마와 상대높임법의 특징

드라마는 외국어 학습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서, 학습자에게 실생활과 가까운 언어 사용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드라마는 학습자들에게 생생한 대리 경험을 제공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언어적 개념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드라마는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 특히 드라마는 영화보다 짧은 시간 내에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외국어 학습에 유리하다. 이처럼 드라마는 학습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쉽게 접하고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상대높임법을 비롯한 다양한 언어 표현을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심선애(2015:56)에 따르면 드라마 활용이 지니는 교육적 효과를 학습자 측면, 언어 교육적 측면, 문화 교육적 측면, 한국어 문화 통합 교육적 측면과 교수·학습 도구적 측면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드라마를 활용하여 한국어 수업을 하는 것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는 영상매체를 곁들여 한국어를 배울 때, 자신들이 보고 체험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간접적인 경험이 더해져 한국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학습과정에서 제공되는 매체 자료들의 대화 내용이나 상황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수업에서 해당 내용을 배워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 입장에서 생각하여,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토대로 수업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인 화자와 대화를 나눌 때 신조어나 슬랭어 또는 줄임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의도를 오해할 수 있다. 이 때 드라마를 활용한 교육이 학습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극을 제외한 대부분의 드라마는 신조어나 슬랭어 또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재나 사전에서 배울 수 없는 실생활의 살아 있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또한 드라마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의 예절, 의상, 술, 결혼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자신의 모국과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빠르게 녹아들 수 있다.

한편, 드라마는 사회문화적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해당 문화와 사회적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대높임법은 단순한 문법적 요소 이상의 사회언어학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 접근만으로 이를 교수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상대높임법에서 중요한 것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종결어미가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한 이해이다. 이를 문법적인 규칙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발화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드라마와 같은 영상매체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 발화 상황 등의 요소를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언어 환경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언어 교육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드라마는 특정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는 실제 발화를 제시하는 동시에, 학습자가 그 언어 사용의 맥락과 사회적 의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드라마는 상대높임법을 가르칠 때 매우 유용한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드라마를 활용한 교육이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점도 고려해야 한다. 드라마의 언어는 종종 절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비표준적인 방언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규범적이지 않은 높임법 사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학습자들에게 잘못된 언어 사용을 유도할 위험이 있으므로, 드라마에서의 언어 사용을 교육적 목적에 맞게 선별하고 적절히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드라마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는 특정 문화적 배경과 상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실제 언어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드라마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활용하는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4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교수-학습 방안

허봉자(2008:45)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임을 감안할 때, 높임법 교육 내용이 일반 국어 교육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항목의 제시가 중요하다. 학습자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는 흥미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한 맞춤형 높임법 교육 내용의 선정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어 교육에서는 사회언어학적이고 화용론적인 측면이 강조되므로, 사회적 변인에 따른 높임법 교육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학습자의 유창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기반으로 하여 교수-학습을 실현하겠다.

의사소통식 교수법은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들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법이다. 이 교수법은 주로 1970년대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는데, 그 핵심은 언어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특징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실 수업은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법적, 담화적, 기능적, 사회언어학적인 면이 포함되며, 언어의 구조적 측면과 화용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이를 통해 학습자는 언어의 형식적 구조와 실질적 사용 맥락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유창성과 정확성은 상호 보완적인 원칙으로 간주되며, 학습자의 의미 중심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는 유창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학습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스타일과 전략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정양미(2001:416)에 따르면 “의사소통 교수법에서 유창성의 지나친 강조와 문법교수 경시는 고착화 문제를 야기하므로 어느 정도의 오류교정과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 언어교수에서 사회언어학적 능력과 유창성을 무시하고 완전히 문법교수로 돌아가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문법과 오류

를 강조한 전통적 교수법으로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을 배출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확성과 유창성 둘 다를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모순이 생기므로 균형 잡힌 학습활동을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문법교수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교수법을 실현하고자 한다. 의사소통 교수법을 실용적 관점에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연계 및 접목하도록 돕는 것이 학습자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시청각 교수법은 청화식 교수법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하지만, 교수 과정에서 교재나 보조 자료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방법은 언어 분석을 사전에 하지 않고, 시각 자료를 통해 언어의 억양이나 특정 상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시청각 교수법은 학습자가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학습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며, 문화적 경험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언어는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교실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 의미 전달이 불명확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실에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교사가 학습자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적합성, 유창성, 비언어적 요소 등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시청각 교수법의 특징은 시청각 자료를 통해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복잡한 언어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시청각 자료는 학습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게다가 동영상, 그림, 사진 등 흥미로운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참여와 동기를 높인다. 그런데 반대로 시청각 자료만으로는 학습자가 자료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시각 자료나 영상을 학습자가 잘못 해석하면 의도와 다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청각 교수법은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의 적절한 활용과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보완적 전략이 함께 요구된다.

의사소통식 교수법과 시청각 교수법의 통합은 언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접근법이다. 이 통합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학습자가 언어의 맥락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이를 실제 의사소통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언어 능력을 강화한다. 시각적 자료(그림, 동영상)와 청각적 자료(음성, 음악)를 활용한 다감각적 접근은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며, 현실적인 언어 사용 상황을 재현해 대화, 토론, 문제 해결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언어의 형태와 기능을 습득하고 실용적인 언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드라마를 활용해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가르치며, 의사소통식 교수법과 시청각 자료를 통합한 학습 모형을 제안한다.

도입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동영상, 질문 등을 통해 학습 주제 노출. - 주제와 관련된 사진, 그림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통해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
제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 문법을 제시해서 의사소통을 시키고 설명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대화의 인물, 대화 배경을 통해 상황, 맥락에 대한 설명. - 동영상을 통해 제시한 대화에서 어휘나 문장을 듣고 따라 읽기 - 동영상에서 제시한 대화에 대한 질문과 답을 통해 대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 확인. - 대화를 통해 관계에 따라 상대높임법은 학습자의 나라와 비교.
연습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 - 상대높임법 ‘합쇼체’와 ‘해요체’의 사용 방법에 대해 익숙하도록 동영상을 보여주고 대화를 반복 연습하고 교사가 학습자들의 오류를 수정.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마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인물들의 관계, 배경을 통해

단계	학습자들은 상황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서 활용.
마무리 단계	- 질문을 통해 학습내용 확인하면서 정리. - 과제 수행.

[표 1] 시청각 교수법과 의사소통 교수법을 도입한 상대높임법 교수-학습 모형

도입 단계에서는 교사가 수업 주제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특히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교수할 때는 단순히 학습 목표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 자료로 활용될 드라마의 대화 상황과 배경을 고려한 수업 도입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상대높임법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제시 단계에서는 선정된 드라마 자료의 대화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사용 양상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대화 속에서 상대높임법의 사용 양상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또한 도입 단계에서 제시한 유도 문제의 정답을 확인하고, 상대높임법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함으로써 학습자가 보다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자는 드라마를 통해 실제 대화를 듣고 따라 하며, 그 대화의 문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휘나 문법을 습득할 수 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학습자들이 두 언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습 단계는 학습 목표를 실제로 익히는 과정으로, 대화문 읽기 연습, 다양한 상대높임법 형태 연습, 새 단어 사용 연습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상대높임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반복 연습을 통해 학습자가 상대높임법의 사용을 체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드라마에서 나온 상대높임법을 동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학습자는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연습은 단순 반복에 그치지 않고 나선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학습자의 기억을 강화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활용 단계는 실제 생활 상황을 가정하여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

용해 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역할극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는 실제 대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역할극은 학습자가 상대높임법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며, 짝 활동이나 그룹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드라마에서 보여준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역할극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점검하고,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습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제공하며, 특히 숙제나 수업 중 발생한 오류들을 정리하여 재차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상대높임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III.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상대높임법 비교 대조

3.1 한국어 상대높임법

한국은 높임법이 발달하였으며 의사소통을 할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는 언어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의 나이, 지위, 신분, 대화에 관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친분 정도, 대화 상황의 공식성의 접근도 등에 따라서 높이는 표현이 다른데, 이와 같이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을 상대높임법이라고 한다.⁸⁾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은 상대높임법은 말하는 사람이 나이, 신분, 지위, 친분 관계를 고려하여, 문장 끝의 서술어에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안 높이는 기능을 하는 종결어미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⁹⁾. 이정복(2006:429)에서는 “국어 높임법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화 참여자와 대화 상황, 사회 구조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각과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한국어 높임법은 문법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실현하는지, 그리고 사회언어학 연구에서 상대높임법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라고 하였다. 박지순(새국어교육 제98호)은 “효과적인 상대높임법 교육을 위해서는 상대높임법의 화계 실현에 관여하는 요인들이 명확히 규명되어 교육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상대높임법은 한국어 높임법 중의 한 갈래로, 화자는 청자와의 사회적 관계나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해 ‘종결어미’를 사용하거나 보조사 ‘요’를 통해 상대높임법을 실현한다. 박지순(2014:294)에서는 “상대높임법은 언어적인 요소 측면에서는 어휘적인 방식과 문법적인 방식으로 실현된다고 보고, 어휘적인 방식으로 실현할 때 주로 종결어미 또는 종결어미의 결합형으로 실현되며, 문법적인 방식으로 실현할 때는 서술어에 높임의 어미 ‘-(으)시’, ‘-니다/-습니다’ 등을 붙인다”고 서술하였다.

8) 문아 (2015:12)에서 참조.

9) 정지호 (2013:20)에서 재인용하였다.

높임 어휘의 경우 사회적 관계나 친족관계에 따른 호칭어와 지칭어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높임법에서 어휘적보다 문법적이 더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법적으로 실현하는 방식만 우선적으로 연구하려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해가 빚어져 의사 소통상의 갈등이 생기게 될 수 있으므로, 상대높임법의 실현에 대해 연구하기 전에 먼저 사회언어학적으로 높임법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3.1.1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결정 요인

높임법은 청자와 화자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상하관계나 친소 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언어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사회언어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대높임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사회언어학회(2012)에서는 “사회언어학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 분야들을 집합적으로 가리키는 명칭으로 언어가 인간 사회의 여러 양상들과 체계적으로 통합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 또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언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모두 포괄하는 연구 분야”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언어학자들은 사회언어학은 문법, 비문법적인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언어를 실제 사용하는 양상을 연구하는 것이고, 언어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용인을 제외하면 불완전한 언어학이 된다고 본다. 박지순(2014:294)은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내용에서는 연령, 지위에 따른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이 있다” 고 하였다. 서상준(1996:90)에 따르면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어떤 높임의 등급을 사용하느냐, 즉 어떤 상대 높임 어미를 선택하여 표현하느냐의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많고 또 이들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말하였다. 이 요인들은 심리적 및 사회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청자에 대한 높임의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특정한 상대 높임 어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상대 높임 어미의 선택과 높임 등급 체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대높임법의 등급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이 되어, 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가) 공적 요인

- ① 화자와 청자의 개별 특성: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등 개인적인 특성.
- ② 화자와 청자의 공적 관계: 연령 차이에 따른 순위와 손아래 관계,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등의 사회적 상하 관계.

나) 사적 요인

- ① 화자와 청자의 개별 특성: 성격, 평소 사용하는 말투 등 개인적인 성향.
- ② 화자와 청자의 사적 관계: 친구나 동창처럼 친밀한 관계, 또는 화자와 청자의 감정 상태에 따른 상호작용.

다) 상황 요인: 연설, 사회적 행사, 수업, 설교, 방송, 신문, 보고서 등의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

박영순(1979:149)에서는 “한국어는 무엇보다 나이가 상대높임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화자의 나이가 상대높임법 등분에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청자의 나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은 아이들에게 ‘하오체’와 ‘하게체’를 쓰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처음 만나서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 경우에는 아이들에게도 ‘합쇼체’와 ‘하오체’를 써야 한다. 어린이들의 경어법은 어른들의 경어법보다 덜 상관적이고, 존대의 정도가 더 낮고, 그리고 청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있어 훨씬 더 단순하다. 각 연령군은 각기 독립된 경어법을 가지고 있으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서서히 그리고 끊임없이 발달시켜 나가는데 결국 어른들의 표준 경어법의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언어·문화적인 지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상대높임법 연구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 요인은 연령과 지위를 통해 살펴보고, 사적 요인은 친밀도를 통해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상황 요인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3.1.1.1 공적요인

1) 연령

공적 요인 중 하나인 연령 또는 나이는 사람이나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를 뜻한다. 한국어에서는 무엇보다 연령이 높임법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⁰⁾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적은 청자에게 ‘해체’와 ‘해라체’를 사용하나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경우 예는 화자보다 연령이 더 적은 청자에게도 ‘합쇼체’ 혹은 ‘해요체’를 사용한다. 화자의 연령은 상대높임법의 사용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화자의 연령에 따라 사용되는 높임의 등급이 달라진다. 화자의 연령에 따른 높임법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보다 연령이 많을 경우 ‘합쇼체’나 ‘해요체’를 사용하고, 화자와 청자의 연령 차이가 없을 때는 ‘해라체’나 ‘해체’가 주로 사용된다. 또한, 화자가 청자보다 연령이 적은 경우에는 ‘해라체’와 ‘해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연령 관계에 따른 높임법 사용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상하 관계를 반영하며, 연령에 따른 언어적 선택은 상대높임법 사용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2) 지위

공적 요인 중 하나인 지위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의미한다. 한국어에서 높임법 사용은 연령에 의한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지위는 직장에서의 직급, 학교에서의 선배와 후배 관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친척 간의 향렬 순위 등 여러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위에 따른 높임법의 차이는 언어 사용에서 중요한 요소로

10) Nguyen Thi Phuong (2021:25)에서 인용하였다.

작용하며, 이러한 관계에 따라 적절한 높임 등급이 선택된다.

(1) 나이가 더 많은 학생이 나이가 이린 과외 선생님에게 하는 말
가. 선생님, 다시 말해 주시겠어요?
나. 선생님, 다시 말해 줘.

학생이 교사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지위의 차이로 인해 학생은 교사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 예문 (1)에서 두 문장은 모두 명령문이지만, (1가)에서는 선어말 접사 ‘-(으)시-’를 사용하여 교사를 높이며 명령의 뉘앙스를 부드럽게 표현하였다. 반면 (1나)에서는 이러한 높임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 교사에게 예의가 부족하게 보이며, 사회언어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표현으로 간주된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 학생은 연령에 관계없이 교사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예절 문화가 존재한다.

3.1.1.2 사적 요인

다음으로 살펴볼 사적 요인은 화자와 청자의 개별 특성과 사적 관계로 나눌 수 있다. 개별 특성의 경우 개인의 성격이나 말투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가볍게 정의하고 넘어갈 수 있다. 본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화자와 청자의 사적 관계인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인 친밀도와 관련이 있다. 친밀도란 지내는 사이가 아주 가깝고 친하게 느끼는 정도로 사전에서 정의 하는데, 한국어 상대높임법은 친소 관계를 표현하는 역할도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대화 상대의 연령차에 관계없이,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화자와 청자가 친족 관계일 경우, 상대높임법의 사용은 나이가 아니라 항렬이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어에서 상대높임법은 대화 상대와의 친밀도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화자의 선택에 따라, 이러한 특징은 대화 상대와의 관계를 더 친근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거리를 두게 할 수 있다. 듣는 사람이 화자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친밀도의 정도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2) 가. 오빠, 이 음식을 먹어 봤어요?

나. 언니, 이 음식을 먹어 봤어?

연령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친오빠에게는 (2나)의 "먹어 봤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친밀도에 따라 "먹어 봤어요"와 "먹어 봤어" 중 하나로 사용한다. 즉, 나이가 비슷한 친한 오빠에게는 "먹어 봤어"를 쓸 수 있지만, 나이가 비슷해도 가까운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먹어 봤어요"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딸이 아빠에게 '학교에 갔다 올게'와 같은 안 높임 표현으로 말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안 높임 표현들 중에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연령이 많은 사람에게 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 있다.

(3) 가. 신주야, 뭐 먹어?
나. 신주야, 뭐 먹니?
(4) 가. 누나, 뭐 먹어?
나. 누나, 뭐 먹니?
(5) 가. 신주야, 이 책을 봐봐.
나. 신주야, 이 책을 봐라.
(6) 가. 누나, 이 책을 봐봐.
나. 누나, 이 책을 봐라.

예문 (3나)와 (5나)에서처럼 의문형 '-니'나 명령형 '-아/어라'는 연령이 많은 청자에게는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4가)와 (6가)에서처럼 비격식체 어미 '-아/어'를 억양만 달리해 의문형이나 명령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화 상대가 친한 관계이거나 연령이 비슷한 사람일 경우에는 (3)과 (5)에서처럼 '-니', '-아라/어라', '-아/어' 등의 표현이 모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3.1.1.3 상황 요인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황 요인은 연설, 사회, 수업, 설교, 방송, 신문, 보고 등, 특정한 상황에 의해 높임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월(2013:89)에 따르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지위 관계를 보면, 화자가 청자보다 직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화자와 청자의 직위가 비슷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화자가 청자보다 높을 때는 일반적으로 ‘합쇼체’나 ‘해요체’를 쓴다. 화자가 청자보다 직위가 낮을 때는 2가지로 나뉘는데, 청자의 나이가 화자보다 많으면 역시 ‘합쇼체’나 ‘해요체’를 쓴다. 청자의 나이가 화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로 ‘합쇼체’나 ‘해요체’를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공식적인 관계〉

선생님 - 학생 / 동료 직원 간 / 선임 직원 - 후임 직원 / 간부 병사 - 일반 병사

〈비공식적인 관계〉

조부모 - 손자 / 부모 - 자녀 / 시부모 - 며느리 / 처부모 - 사위 / 부부 / 선배 - 후배

공식적인 상황이나 비공식적인 상황 혹은 사적인 상황이나에 따라 높임 등급의 사용이 달라진다. 대체로 공적인 상황에서의 높임의 정도가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높임의 정도 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고원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 보다 나이가 많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일 때, 보통 사적인 자리에서는 안 높임이나 낮춤의 등분이 쓰이지만 공식적인 장면인 회의식상에서는 높임의 등분이 사용된다.”¹¹⁾ 고 언급했다. 또한 정지호는 “친밀한 관계가 아닐 때에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높임의 등분이 사용되며, 공적인 자리에서도 높임의 등분이 사용되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비격식체가 더 많이 쓰이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격식체가 더 많이 쓰이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¹²⁾ 라고 하였다. 위의 주장들을 통하여 화자와 청자 간의 ‘친밀한 관계’ 보다 ‘상황’ 이 더 우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식적인 상황에서 ‘나이’ 요소 또한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보통 친구들끼리는 친밀도에 따라서 반말을 쓸 수 있지

11) 고원 (2017:35)에서 인용하였다.

12) 정지호 (2013:23)에서 인용하였다.

만,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상호간에 높임법을 써야 한다. 또한 선생님과 학생은 사적인 상황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 주제에 대해 발표 해봐’ 라고 말할 수 있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발표 해보세요.’ 라고 높임 표현과 함께 사용해야 어울린다.

3.1.2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실현 방식

앞에서 정의한 사회언어학적 접근을 통한 결정 요인들을 바탕으로 상대높임법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상대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 존경이나 격식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문장의 서술어 어간 뒤에 다양한 종결어미를 덧붙여 나타낸다. 이 높임법은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 중에서 가장 세분화되어 있으며,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기반으로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상대높임법은 주로 화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친밀도 등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실현된다. 이러한 높임법은 문장의 종결어미를 통해 상대방의 신분이나 관계에 맞추어 존경을 표하거나 격식을 차리는데, 주체높임법과 객체높임법과의 차이점은 바로 상대방인 청자에 대한 높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학교 문법에서는 상대높임법을 격식체인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합쇼체’와 비격식체인 ‘해체’, ‘해요체’로 분류한다. ‘해라체’는 친족, 계급, 신분 및 연령에 따라 존경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대할 때 사용된다. ‘하계체’는 혼인, 사회적 지위, 계급, 연령 관계에서 존경자가 비존경자를 일방적으로 대할 때 쓰인다. ‘해라체’와 비교해 볼 때, ‘하계체’는 고유한 형태가 부족해 다른 형태로 보완되는 경우도 있다. (예: ‘-느니’) ‘하오체’는 친족이나 사회적 지위, 연령이 상반된 관계에서, 비존경자가 존경자를 높이거나 반대로 존경자가 비존경자를 높일 때 사용된다. ‘하계체’보다 고유한 형태가 덜 갖추어져 있어, 다른 형태로 보충되는 경우가 많다. (예: ‘-(으)오’) ‘합쇼체’는 친족 관계나 사회적 신분, 연령 등에서 비존경자가 존경자를 일방적으로 대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다. ‘해체’는 친족, 계급, 사회적 지위 등의 관계에서 지위와 연령이 충돌할 때 사용되며, ‘반말’

은 이러한 상대높임법을 보완하는 특수한 형태로 등장한다. 반말은 말끝이 불분명하고, 높임과 낮춤을 구분하지 않는 어투로, 최근에는 낮추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충하여 사용되며 ‘두루 낮춤’의 역할을 하였다. ‘해요체’는 높이는 뜻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말에 종결보조사 ‘요’를 붙인다.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충하여 사용되며 ‘두루 높임’의 역할을 한다.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005:67)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상대높임법 체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격식체는 주로 명령형인 ‘하십시오’로 대표되는 ‘합쇼체’와 ‘해라’로 대표되는 ‘해라체’ 두 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 비격식체는 ‘해요체’와 ‘해체’로 체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하오체’와 ‘하게체’는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혼용하는 상황에서 이 두 체의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급이나 중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높임법 교육을 할 때,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005:68)에 따르면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높임법 교육을 할 때는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하오체’나 ‘하게체’ 역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하오체’와 ‘하게체’를 교육하는 시기를 고급의 후반부에서 가볍게 다루는 정도로 본다. 따라서 상대높임법을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고, 격식체는 높임의 정도에 따라 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낮춤의 4단계로 나눈다. 또한, 비격식체는 아주 높임과 예사 높임에 두루 쓰이는 해요체, 예사 낮춤과 아주낮춤에 두루 쓰이는 ‘해체’로 나누고자 한다. 격식체는 높임의 순서에 따라 ‘합쇼체’, ‘해라체’로 나누고, 비격식체는 ‘해요체’와 ‘해체’로 나뉜다. 격식체는 의례적 용법으로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데 반하여, 비격식체는 정감이 있고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이다” 라고 하였다.

이희성(2009:87)에 따르면, 외국인을 위한 상대높임법의 4등분 체계는 학교 문법에서 제시한 등분 체계와 그 쓰임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화자 자신의 나이, 친족관계, 지위, 상황 등이 높임법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발화의 때와 장소가 주요한 기준

이 된다는 것을 높임법 학습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본다. 예를 들면 공식적인 강의, 강연, 직장 면접, 회의 등에서 객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인 격식체로서 합쇼체가 주로 사용되는데, 일상생활이나 개인적인 대화 상황에서 주관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인 비격식체로서 ‘해요체’나 ‘해체’가 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요즘 한국인들 중 ‘하계체’나 ‘하오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하오체’는 ‘해요체’로 대체되고, ‘하계체’는 ‘해체’로 대체되고 있는 듯하다. 일부 논의에서는 ‘하계체’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반대로 ‘하계체’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라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하오체’는 현대 젊은 세대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청유형 어미인 ‘-(으)십시오’는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안내문이나 지시문 등에서 ‘오른쪽으로 가시오’와 같은 형태로 명령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두 문체 모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렇듯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조차도 학교 문법의 고급 대상인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6등급 체계를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초·중급 대상인 일반 목적 학습자들의 4등급 체계를 사용한다. 본 연구는 베트남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을 위한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연구로서 문법적 종결어미를 다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합쇼체’, ‘해체’, ‘해요체’, ‘해라체’의 4등분 체계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3.1.2.1 합쇼체

‘합쇼체’는 상대방을 가장 높여 대접하는 상대높임법으로, 한국어에서 ‘아주 높임’의 의미를 지닌 표현 방식이다. 이 표현법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가장 강조하는 형태로, 상대높임법의 등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한다. ‘합쇼체’는 주로 처음 만난 사람이나, 손님과 같은 존경을 표해야 할 대상을 대할 때 사용된다. 또한 공식적인 자리, 예를 들어 회의, 연설, 발표, 토론, 보고 등의 상황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자주 활용된다.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종결어미나 선어말 어미를 중심으로 상대높임법을 가

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대높임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종결어미는 그 사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합쇼체’는 한국어 문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높임 표현이므로, 이를 교육할 때에는 의미와 형태적 사용법을 정확히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합쇼체’의 어미는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요’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드러낸다. 과거의 문학 작품이나 희극에서 종종 발견되는 ‘-습니다요’와 같은 표현은 사실 높임 표현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므로,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합쇼체’는 문법적, 의미적 측면에서 정확히 이해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중요한 한국어에서는 ‘합쇼체’의 교육이 단순한 언어적 측면을 넘어서 문화적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합쇼체’의 정확한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가 문법적 정확성과 문화적 예의를 동시에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7)

- ㄱ. 내일 회의에서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ㄴ. 부장님, 회의록 방금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직원→부장님)
- ㄷ.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해도 될까요? (팀원→팀장)
- ㄹ. 감독님, 이번 경기에는 저를 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수→감독님)
- ㅁ. 정말.. 사람들이 저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좀 하세요. (직원→손님)
- ㅎ. 이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배려해 주세요. (직원→손님)
- ㅏ. 저는 이 수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학생→과외 선생님)
- ㅑ.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세미나실로 이동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관계자→참석자)

츠. 오늘 제가 그분보다 더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에 탑니다. (기사→ 손님)

(7ㄱ~ㄴ)은 모두 상대방을 가장 높여 대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로, ‘합쇼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정중한 상대높임법에 속한다. ‘합쇼체’에서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사용될 때, 종결어미 ‘-십시오’는 종종 ‘-시지요’로 대체된다. 이는 명령형이 직접적인 요청을 전달하는 데 비해, ‘-시지요’는 상대방의 결정을 유보하고 존중하는 형태로 권유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권유형은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하지만, 그 행위의 결정을 청자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더 정중하고 공손한 표현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7ㄱ,츠)에서 보듯이 ‘-시지요’의 구어체 형태인 ‘-시죠’는 ‘합쇼체’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합쇼체’는 상대높임법의 6등급 중에서 청자를 가장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최상급 표현으로, 공식적인 상황이나 화자가 나이, 계층, 신분상 상위에 있을 때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합쇼체’의 사용은 격식이 필요한 사회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3.1.2.2 해요체

‘해요체’는 ‘합쇼체’다음으로 상대를 높여 대접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두루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요체’는 ‘-아요/어요, -세요, -군요’ 등의 어미로 실현된다. 이러한 높임법의 사용이 실현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8)

ㄱ. 민호: 내일 만날까?

지연: 왜 자꾸 반말하세요?

ㄴ. 엄마: 저기, 아빠가 드릴 돈 있으면 좀 정리해줄 수 있을까?

정우: 네,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ㄷ. 은지: 그래요! 정말 멋져요. 이런 기회가 온다니!

준호: 맞아요, 정말 놀랍네요.

ㄹ. 민수: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상훈: 그럴까요? 사실 제가 요즘 커피 맛을 잘 못 느껴요. 아마 카페 인도 이제 효과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ㄱ. 연희: 아, 저희 부모님 아니에요. 제 동생이에요.

매니저: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그럼 동생분 조금만 더 이쪽으로. 좋아요, 웃어주세요.

ㅂ. 지혜: 너 과외 끝났어? 오늘도 늦게까지 했네.

모든 예시는 ‘해요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높이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 중에서 (8ㄱ)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 간의 대화로, ‘요’를 붙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에 맞게 하였다. (8ㄴ)은 선어말 어미 ‘(으)시+요’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존경을 표현한 예시이다. (8ㄷ)과 (8ㄹ)은 각각 ‘-군요’로 끝나는 표현이며, (ㄱ)과 (ㅂ)은 ‘-네요’로 끝나는 표현으로, 모두 상대방을 높여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오늘날에는 상위의 사람에게 격식을 차리지 않을 때 ‘합쇼체’보다는 ‘해요체’를 많이 쓰고, 동위에 있는 사람에게나 하위에 있는 사람에게 존대 표현을 할 때에도 ‘합쇼체’보다는 ‘해요체’를 쓰기 때문에 일상 담화에서 ‘해요체’는 가장 폭넓게 쓰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¹³⁾.

3.1.2.3 해체

‘해체’는 ‘해라체’와 거의 동등한 등급의 대우 표현이지만, ‘해라체’보다는 상대를 약간 더 높이는 등급의 표현으로 ‘두루 낮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9)

ㄱ. 수지: (의자에 앉으며) 누나, 우리 오늘 뭐 먹을까?

민호: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 내가 돈 모아서 맛있는 거 사줄게.

13) 한신신 (2013:52)에서 인용하였다.

ㄴ. 유나: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봐. 솔직히 내가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도 그때는 정말 공부하기 싫었거든. 하지만 어찌겠어? 결국 대학 가야 하지 않겠어?

해인: 공부가 싫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귀찮은 거지.

ㄷ. 다니엘: 나 아직 돈이 없어서... 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온 세경이랑 신애를 위해서 환영회를 해야지.

수진: 너는 뭐 있어? 과외비라도 받았을 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입을 닫고 있어? 양심 없네.

ㄹ. 민호: (수지에게 손을 내밀며) 괜찮아?

수지: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해체’는 비격식체 중에서도 낮춤 표현에 해당하며, 주로 반말로 알려져 있다.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해체’ 표현은 크게 종결형과 비종결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9)ㄱ~ㄹ에서는 각각 종결형 ‘-야’, ‘-게’, ‘-아/어’, ‘-해’가 사용되며, 이들은 모두 ‘해체’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마지막 예시에서는 비종결형인 ‘-거든’이 사용되어, 문장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 예문들은 주로 동년배 간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에서 높은 친밀도가 강조된다. 특히 (9)ㄴ에서 보듯이, 동사 ‘알다’에 ‘아’를 붙여 ‘알아’ 대신 구어체에서는 ‘알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드라마에서 자연스러운 언어 표현을 위해 종종 사용되는 방식이다. ‘해체’는 특히 어린 화자에게서 자주 사용되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빈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해체’ 표현은 실제 언어 생활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로, 상대높임법 교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비격식체는 ‘해요체’와 ‘해체’로 구분되며, 이는 보조사 ‘요’의 유무로 판별된다. ‘해요체’는 ‘요’를 붙여 만든 비격식적 높임 표현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반면, ‘해체’는 ‘요’를 생략하여 비격식적인 낮춤 표현을 만든다. ‘해요체’는 상황에 따라 예사높임과 아주 높임이 필요할 때 쓰이며, ‘해체’는 예사낮춤과 아주낮춤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구분은 상대높임법에서 두 표현이 각각 어떤 사회적 관계나 상황에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비격식체 ‘해요체’와 ‘해체’는 서로 다른 높임 표현이지만, 두 표현 모두 대화의 상대와의 거리감을 줄이고, 더 친근하고 융통성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대화자 간의 정감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관계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다.

3.1.2.4 해라체

‘해라체’는 상대를 가장 낮추는 등급의 표현으로 ‘아주 낮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라체’는 보통 친구나 어린 사람을 아주 낮춰서 말할 때 사용된다.

(10)

ㄱ. 세훈: 오늘 끝나면 뭐할 거야?

종석: 나? 일 끝나고 바로 운동 가야지.

ㄴ. 종석: 만약 네가 안 좋아도 예의 있게 대답해. 내가 화내면 안 되니까.

가을: 알겠어, 알겠어. 걱정하지 마.

ㄷ. 세훈: 아, 나 일이 생겼어. 잠깐 나가야 돼.

세혁: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아무튼, 그거 다시 확인해봐.

ㄹ. 하연: 그거 맛있어 보이는데, 많이 먹어도 돼?

장미: 어, 많이 먹어도 돼. 맛있으니까 마음껏 먹어.

ㅁ. 유나: 그렇게 계속하면 내가 안 참을 거야.

종석: 알았어. 다시 그런 일이 없게 할게.

ㅂ. 수미: 그거 진짜 맞는 말이야?

진주: 응, 맞아. 그냥 솔직히 말했어.

‘해라체’는 한국어에서 가장 낮은 존댓말의 형태로, 주로 아랫사람에게 사용되는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다. 이 표현은 상대방을 명령이나 지시의 대상으로 삼아, 주로 아랫사람 또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 사용된다. 예문(10) ㄱ~ㄹ에서는 이 ‘해라체’가 상하 관계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할 때

주로 등장하며, 명령형의 특성상 상대방에게 주는 의도가 명확하고 직접적이다. ‘해라체’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낮추는 기능을 하며, 주로 아랫사람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서 사용하거나, 친한 사이에서 예의나 격식을 차리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적 맥락에서는 이 표현이 상하 관계가 명확한 직장이나 군대 등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에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해라체’가 상대방을 낮추는 형태의 표현이기 때문이며, 직장 내에서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 언어 예절』 (2001)에서는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상호 높임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라체’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공식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며, 상호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의 높임법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 상대높임법은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나 상황을 고려해 표현하는 방식이다. 상대높임법은 주로 문장 끝의 서술어에 종결어미를 붙여 실현되며,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표현은 연령, 지위, 친분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나이가 많은 청자에게는 격식체가 사용되며, 지위 차이나 관계에 따라서도 표현이 달라진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는 비격식체가 사용될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격식체가 요구된다.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연령이나 친밀도보다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높임법은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며,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2 베트남어 상대높임법

베트남어 높임법은 한국어와 달리 문법적 형태소가 아닌 어휘적 요소인 단어로 실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인 요소들에 대

해도 언급해보려 하고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이 어휘적으로 실현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3.2.1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의 결정 요인

베트남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에서는 화자가 상호 간에 맞는 호칭을 선택하거나 적합한 어휘를 사용할 때, 사회적 요인인 연령과 지위 및 화자와 청자 간의 친소관계를 고려해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베트남어는 대화하는 동안 화자와 청자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가정에 기초로 한 친족의 관계로 보고 적절한 호칭을 선택하여 사용한다¹⁴⁾. 베트남 사회에서는 높임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연령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베트남어에서 높임법의 사용은 상대방과의 연령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지위나 직위보다 연령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친족관계에서는 연령보다는 가족 내 서열, 즉 가부장적 계층 구조가 높임 등급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높임법의 사용은 화자가 대화하는 자리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존댓말이 사용되는 반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존댓말이나 친근한 언어가 사용된다. 더불어, 대화 상대가 한 명일 경우와 다수일 경우에도 높임 등급은 달라지며, 대화 상대가 많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존중을 표하는 표현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언어 사용에 있어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반영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적 선택을 요구한다.

3.2.1.1 공적 요인

공적 요인은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사회적 관계인 지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관계가 조금은 다르다. 베트남어에서 지위는 청자 대우 표현의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연령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14) Nguyen Thi Phuong (2017:40)에서 인용하였다.

역할을 한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우선시되며,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어에서는 화자가 청자보다 서열이 높을 경우 낮춤 등급을 사용하고, 반대로 화자가 청자보다 서열이 낮을 경우 높임 등급을 사용한다. 그러나 베트남어는 사회적 관계가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도 높임 등급을 결정하는 데 화자와 청자 간의 서열 차이를 고려하지만, 연령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다.

1) 연령

먼저 연령에 대해 살펴보면, 베트남에서는 첫 만남에서 서로의 연령을 먼저 묻는 인사 문화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실례로 여겨질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을 물어보는 이유가 명확하다. 이는 화자가 상대의 연령에 맞는 2인칭 대명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화자의 1인칭 대명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적합할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화자와 청자의 연령 차이에 따라 청자에게 사용되는 높임 표현의 등급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대리 직급의 회사원이 '사장'보다 직위는 낮지만 연령이 더 많을 경우, 청자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직위가 더 높은 '사장'이 연령이 적기 때문에 대리 직급 회사원에게도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2) 지위

다음으로 지위 요인은 사회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고려한 것으로 베트남에서는 연령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사장님 - 직원, 총장님 - 선생님, 팀장님 - 팀원, 선생님 - 학생, 교수님 - 대학생' 등의 관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회사 직원들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상대높임법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베트남의 직장생활에서는 직위 호칭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고, 직위 호칭어는 친족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편이다. 예를 들면 'anh Nam'(남 오빠), 'chú Minh'(민 아저씨), 'chị Nga'(응아 언니), 'cô Lan'(란 아주머니) 등이 있다.

가. Chú Minh ơi, báo cáo đã xong chưa?

(ơi: 여기부사)

민 아저씨, 보고가 끝났나요?

나. Anh Lanh ơi, đối tác đã đến rồi ạ.

(ơi: 여기부사, ạ: 높임 부사)

라잉 씨, 파트너가 왔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지위는 학교나 직장에서의 대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과 대화할 때, 학생은 일반적으로 선생님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며, 선생님을 부를 때 'thầy'나 'cô'(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이 경우, 학생은 청자인 선생님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연령 요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학생간의 관계에서는 주로 직위나 역할이 언어 사용에 영향을 주며, 연령 차이에 따른 높임법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내에서의 공식적인 지위 관계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언어적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12)

가. Em xong bài tập chưa?

숙제를 다 했니?’

나. Em chưa làm xong ạ.

(ạ: 높임 부사)

저는 아직 다 못했습니다/어요.

예문은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하는 내용이다. 화자인 ‘선생님’이 청자인 ‘학생’에게 낮춤 등급을 사용하였으며 ‘학생’이 높임 등급을 사용하였다. 예문을 보면 여기서 연령 요소와 상관없이 서열에 따라 청자 대우 표현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의 대화에서, 한국어와 달리 지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하여 상

대방을 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적다. 문화적 차이에 따라, 직장에서의 대화에서는 청자의 이름 앞에 호칭어를 붙여 친밀감을 표현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러한 방식은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를 보다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만들어주지만, 직위를 강조하는 표현이 사용될 경우 대화에서 공식적이고 경직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직장에서의 대화는 지위보다는 친밀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높임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13) (사무실에서 직원이 사장에게 하는 말)

Chị Mai ơi, bao giờ có thể gặp chị ạ?

(ôi: 호격조사. ạ: 높임 부사)

마이 언니,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직원이 사장과 대화하는 상황에서, 화자는 사장의 직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가족 관계처럼 친근한 호칭인 ‘언니’를 사용하여 청자의 이름 앞에 붙인다. 이러한 표현은 상하 관계에서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오히려 베트남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화 방식이다. 청자의 이름 앞에 호칭어를 덧붙여 사용하는 방식은 연령, 상하 관계, 그리고 친소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직장 내 대화에서 상위 직급의 화자는 하위 직급의 청자에게 예의를 지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청자 대우 표현에서 낮춤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상위 직급의 직무적 요구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예의를 중시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3.2.1.2 사적 요인

베트남어에서도 사적 요인은 한국어와 비슷하게 화자의 청자의 ‘친밀도’에 좌우된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개별 특성으로 분류된 개인의 평소 말투나 성격은 고려하면서도, 사적 관계인 ‘친밀도’라는 개념은 베트남어에서는 대화를 할 때 단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 관계에

따른 예시들을 살펴보자.

Nguyen Thi Phuong(2015:79)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화자가 스스로 자신을 1인칭 대명사로 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화자와 청자 간의 대화 상황에서 어린이가 어른에게, 딸이 부모님에게 애교를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 다른 점으로, 베트남에서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자녀가 부모에게는 항상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4) (아빠와 딸의 대화)

가. Con đã làm bài tập chưa?

‘딸, 숙제를 했니?’

나. Làm rồi.

‘했어.’

다. Con làm rồi ạ.

(ạ: 높임 부사)

‘저는 먹었습니다/어요.’

예문 (나)처럼, 베트남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며,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에게는 항상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부모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화적 규범으로 여겨진다. 가정에서 화자가 윗사람과 대화할 때, 문장에 반드시 주어나 호칭을 사용하고, 문장 끝에 높임 부사 ‘ạ’를 붙여야 한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중요한 언어 규칙으로,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

(15) Con gái: Mẹ ơi, con xong rồi ạ.

딸: 엄마, 다 했어요.

(ơi: 호격조사. ạ: 높임 부사)

Mẹ: Con gái giỏi quá. Cảm ơn con.

어머니: 딸 참 잘했어. 딸 고마워.

예문은 딸과 어머니 간의 대화로, 딸은 'con'이라는 일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존대 어기 부사인 'ạ'를 붙여 예의를 표현한다. 여기서 'con'은 자녀가 부모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1인칭 대명사로, 2인칭 대명사로는 '너'라는 의미도 가진다. 어머니는 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때, 친밀한 느낌을 주는 'Cảm ơn con' (딸, 고마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Xin chân thành cảm ơn'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는 'Xin trân trọng cảm ơn' (정중하게 감사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보통 목적어 없이 쓰인다. 그러나 이 예문에서 어머니가 'con'을 사용한 이유는, 목적어를 생략하면 친밀감과 정중함이 부족해져 말이 허울만 남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높임을 사용한다.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높임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16)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

가. Em đã gặp bạn không?

친구를 만났어?

나. Em đã gặp bạn rồi ạ.

저는 친구를 만났습니다/어요.

(ạ: 높임 부사)

(17)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

가. Nấu cơm đi.

요리해.

나. Vâng

네.

(Vâng: 높임 표현)

예문 (16)을 보면 화자인 남편이 청자인 '아내'에게 반말을 하는데 '아내'는 존댓말로 대답하였다. 이러한 대화는 베트남 가정에서 일반적인 대화지만,

(17)처럼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반말을 하고 ‘남편’이 높임말을 사용하여 대답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한국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가장 친밀한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높임을 사용해야 한다. 형제간에도 기본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이 엄격하지 않으며, 높임 부사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대신,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의를 표현할 수 있다.

3.2.1.3 상황 요인

마지막으로 상황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어와 동일하게 공식적인 상황인지 비공식적인 상황인지에 따라서, 혹은 사적인 상황이나에 따라 높임 등분의 사용이 달라진다. 대체로 공적인 상황에서의 높임의 정도가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높임의 정도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말하는 이가 듣는 이보다 나이가 많고 서로 친밀한 관계일 때, 일반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는 높임이나 낮춤의 구분이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인 회의에서는 높임 표현이 사용된다. 친밀한 관계가 아닐 경우, 사적인 자리에서도 높임 표현이 사용되며,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높여 말하고, 사적인 상황에서는 높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행정적인 환경에서는 대체로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은 지위, 관계, 객관성, 모범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도 지배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18) Xin trân trọng kính mời ông Nguyễn Văn Nam, giám đốc công ty, lên phát biểu ý kiến.
(웬반남 회사 대표님께서 의견을 내어주시도록 나와 주십시오.)
Trân trọng kính mời các vị lãnh đạo đến.
(지도자분들께서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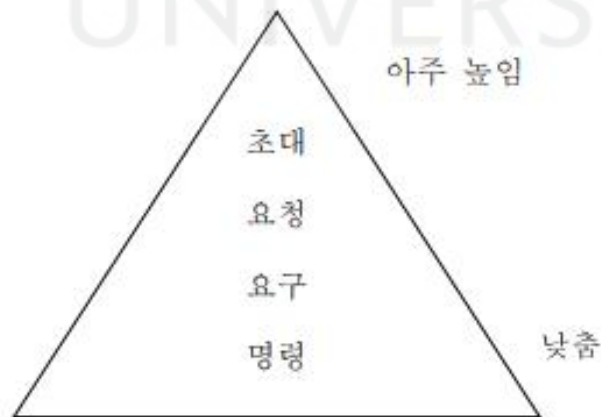
예문들은 모두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문장들이다. ‘mời’(초대하다) 대신 높임 명사인 ‘kính mời’를 사용하였고 또한 앞에서 부사인 ‘trân trọng’

(정중하다)도 같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2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의 실현 방식

한국어와 달리, 베트남어의 상대높임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구분되며, 주로 높임, 평등, 낮춤의 세 가지 표현으로 나뉜다. 베트남어에서 높임 표현은 화자와 청자 간의 연령, 직위 등 대칭적인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질 경우 높임 표현이 사용되며,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차이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평등한 표현이 쓰인다. 이와 같이 베트남어의 상대 높임 표현은 허사, 침사, 부사와 보조 동사 등을 통해 특정한 높임을 나타낸다.

베트남어에서 상대 높임은 주로 평서문보다는 의문문과 명령문에서 더 빈번하게 실현된다.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은 화자가 발화하는 문장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명령, 요청, 초대와 같은 화행에 따라 상대 높임의 위계와 표현 방식이 변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발화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상대높임법의 적절한 선택을 요구한다.



[그림1] 베트남 상대높임법의 표현 등급, Ta Thi Thanh Tam(2009:105)

베트남어는 한국어와 달리 서술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상대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방식은 문법 형태소에서의 변화가 아닌, 어휘적 첨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문장 끝에 부사나 기타 어휘적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베트남어에서 상대 높임 표현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주어의 실현이다. 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 문장 내에서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주어가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어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다양한 어휘적 요소들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높임 부사인 ‘ạ’, 첨사인 ‘nhé’, 응답하는 부사인 ‘dạ’와 ‘vâng’, 보조 동사인 ‘thưa’, ‘xin’, ‘mời’와 같은 표현들이 상대 높임을 구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문장의 맥락과 화자의 의도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3.2.2.1 높임 부사 ‘ạ’

Nguyen Thi Phuong에 따르면 “베트남어의 높임 부사 ‘ạ’는 화자가 청자보다 연령이 더 적거나 사회적 지위가 더 낮은 경우에 청자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문법 형태소이다.”¹⁵⁾ 일반적으로 일상 대화에서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문장 끝에 높임 부사 ‘ạ’를 붙이는데, 이 부사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등 다양한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 ‘ạ’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베트남어에서 존댓말을 사용할 때 자주 등장하는 부사이다.

(20) 가. Bố đã tan làm chưa đấy?

아빠 퇴근했어?

나. Bố đã tan làm chưa ạ?

아빠 퇴근했어요?

(21) 가. Bố ơi, mua cái này đi

아빠, 이거 사

나. Bố ơi, mua cái này đi ạ

아빠, 이것을 사세요

15) Nguyen Thi Phuong (2017:57)에서 인용하였다.

여기서 'ạ'는 관계를 표시하거나 존중을 나타내는 부사로, 주로 화자가 청자보다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 청자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문법적 요소이다. 또한, 이 부사는윗사람이 아랫사람이나 동년배와의 대화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높임을 드러내기보다는 친밀감을 드러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관계와 상관없이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3.2.2.2 첨사 'Nhé'

첨사 'Nhé'는 주로 명령문과 청유문의 끝에 사용되며, 화자가 청자보다 연령이 적고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 상대방에게 높임을 표현하려는 경우에 쓰인다. 또한, 이 표현은 화자가 청자를 존중하고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고자 할 때 사용된다.

(22) Em vào trước nhé.

첨사 'Nhé'는 윗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이나 동년배 간에도 사용된다. 이 첨사는 화자가 청자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청자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 사용되며, 강요하는 느낌 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며 이야기하는 느낌을 전달한다. 예를 들어, 친구 간의 대화에서 'Nhé'를 사용하면, 명령문이 더 부드럽고 덜 강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3.2.2.3 응답하는 부사 'Đạ', 'Vâng'

베트남어에서 '네', '예'와 같은 뜻을 가진 부사인 'Đạ'와 'Vâng'은 일상 대화에서 화자가 자기보다 연령이나 지위가 더 높은 청자의 부름이나 묻는 말에 대답할 때 반드시 문장 앞에 붙여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가 어른과 대화할 때 'Đạ'나 'Vâng'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베트남의 북부 지방에서 ‘Vâng’을 사용하고 남부 지방은 ‘Dạ’를 사용하는데 ‘Dạ’, ‘Vâng’을 합쳐서 쓰는 경우도 있다. ‘Dạ’, ‘Vâng’의 낮춤말로는 ‘Ừ’라는 부사가 있다.

(23) (할아버지와 손자 대화하는 말)
가. Cháu học lớp mấy?
너는 몇학년이니?
나. Dạ, cháu lớp 3.
네, 할아버지. 저는 3학년이에요.
나. Cháu lớp 3.
나는 3학년

(23가)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낮추는 말을 하였고, 손자는 할아버지를 높이며 예의를 나타내기 위해 ‘Dạ’를 문장 앞에 붙였다. 반면, (23나)에서는 부사 ‘Dạ’를 사용하지 않아서 높임 표현이 부족하고, 손자와 할아버지 간의 친밀감도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자가 2인칭 대명사 ‘Cháu’(조카, 손자, 손녀)를 사용하는 이유는 베트남어에서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화자와 청자 간의 친밀감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어와 차이가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호칭을 붙여 말하는 것이 친밀감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어에서는 청자가 화자보다 연령이 낮더라도 지위가 높을 경우, 높임 부사 ‘ạ’나 침사 ‘nhé’를 사용하지 않고 문장 앞에 ‘dạ’를 붙여서 높임을 나타낸다.

3.2.2.4 보조 동사 ‘Thưa’

베트남어 대화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예의 있게 말할 때 ‘Nói’(말하-)대신에 ‘Thưa’(말씀드리-)를 사용한다.

(24) 가. Con có chuyện muốn <u>thưa</u> với mẹ.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 Con có chuyện muốn nói với mẹ.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

위의 (24)은 화자가 엄마에게 한 말이지만 (24가)는 ‘Thưa’(말씀드리-)를 사용하여 청자인 ‘Mẹ’(엄마)를 높인 것이고 (24나)는 높임 표현 어휘 ‘Thưa’(말씀드리-)를 사용하지 않고 ‘Nói’(말한다)를 사용하므로 청자를 높이지 않으며 예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베트남어에 보조 동사 ‘Thưa’(말씀드리-)는 대화에서 존경을 받는 상대를 호칭할 때 그 호칭어 앞에 붙여 아주 높임을 표현하며 한국어의 접미사 ‘-님’과 같다.

(25) (호찌민과 고아 대화하는 말)

가. Châu tên là gì?

너는 이름이 뭐니?

나. Thưa bác, cháu tên là Trang ạ

예, 큰아버지. 제 이름은 ‘짱’입니다/예요.

한국어 접미사 ‘님’ 베트남어 보조 동사 ‘Thưa’는 그 쓰임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예문을 확인해보자.

(26) 가. 저는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 Tôi đã báo cáo xong, thưa giám đốc.

나. 사장님, 근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 Thưa giám đốc, đã hết giờ làm việc.

다. 선배님, 수강 신청했습니까? / Thưa tiền bối, anh đã đăng kí lớp học chưa?

3.2.2.5 보조 동사 ‘Xin’

‘Xin’은 존경의 뜻을 담은 요청 표현으로, ‘요청하다’는 의미를 지닌 보조 동사이다. 이 보조 동사는 2인칭 대명사 앞에서 ‘부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화자가 청자에게 예의를 차리며 요청할 때, ‘Xin’은 동사나 명사 앞에 위치하여 공손함을 나타낸다. 한국어의 ‘합쇼체’와 유사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27) 가. Xin anh giúp cho.

예문 (가)는 화자가 청자에게 공손한 표현 ‘Xin’으로 부탁하는 예문이다. 문장을 보면 ‘Xin’은 명사 앞에 위치하여 문장 끝에 높임 부사 ‘ạ’와 함께 사용되지 않아도 청자를 높이며 부탁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3.2.2.6 보조 동사 ‘Mời’

‘Mời’는 ‘초청하다’ 또는 ‘초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일상 대화에서는 청유나 부탁의 의미를 담아 ‘~해 주세요’, ‘~하세요’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된다. 주로 2인칭 대명사나 명사 앞에 위치하며, 문장의 처음에 사용되어 청자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거나 권유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28) 가. Mời anh ký vào hóa đơn.

영수증에 사인 해주세요.

나. Mời mẹ ra.

어머님 나오세요.’

위의 예시는 화자가 청자에게 공손하게 표현하는 예로, 보조 동사 ‘Mời’를 사용하면 명령이 아닌 부드러운 권유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만약 문장에서 보조 동사 ‘Mời’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문장은 강한 명령의 뉘앙스를 갖게 된다. ‘Mời’는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정중하면서도 강압적이지 않은 톤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2.2.7 양태 표현

베트남어에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하여 호칭어, 부사, 첨사, 보조 동사,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되기도 하지만 양태 표현(양상 어구-Modal phrases)에 의한 높임법도 많이 사용된다. 안경환 (2002:240)에 따르면 “청자에게 존경과 정중함을, 화자에게는 겸손과 재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은 발화에 있어서 그 내용을 유화시키기도 하고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지게 하기도 한다, 베트남어에는 양상 어구에 의한 경어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양상 어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한국어 문법에서 흔히 사용하는 '양태'라는 용어로 표기될 것이다. '양상 어구'는 화자의 의도나 태도, 상황에 따라 발화의 성격을 조정하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어휘적 표현을 지칭하며, 이는 문법적 의미의 뉘앙스를 추가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양태'란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세분화하여 표현하는 문법적인 장치인데, 주관적인 범주이므로 화자의 표현 의도에 따라 해당 표현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다. 즉 말하는 사람의 감정, 판단, 느낌, 태도 등에 따라 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한국어에서는 추측, 바람, 판단, 행동 지시, 의도 혹은 의지, 능력 등으로 세분화하여 나눌 수 있지만, 베트남어의 양태 표현은 종류가 많지 않다.

(29) 가. Rất hân hạnh được gặp bạn.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문을 살펴보면 ‘rất hân hạnh’과 같은 양태 표현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 ‘rất hân hạnh’은 ‘반갑다, 아주 기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있다.¹⁶⁾ 이러한 양태 표현을 사용할 때 자기를 낮추며 아주 존경한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높임을 나타낼 수 있다. 주로 화자가 청자에게 예의 바르게 요청하거나 부탁할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thất lễ(실례하다)’, ‘làm ơn(...해 주십시오)’, ‘làm phiền(괜찮으시면...)’과 같은 겸손한 표현들이 있다. 이러한 표현 외에도 베트남어에서 ‘xin lỗi’는 ‘thất lễ(실례하다)’에, ‘cảm phiền’은 ‘làm phiền’(괜찮으시면...)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화자가 청자에게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 이러한 양태 표현들을 사용하면 그 말이 더 부드럽고 공손하게 전달될 수 있다.

16) Nguyen Thai Hoang Linh (2022:53)에서 인용하였다.

이처럼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은 한국어와 달리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높임, 평등, 낮춤의 세 가지 표현으로 나뉜다. 주로 화자와 청자 간의 연령이나 지위 차이에 따라 결정되며,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질 경우 높임 표현이 사용된다. 이와 반대로, 연령이나 지위 차이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평등한 표현이 쓰인다.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은 주로 평서문 보다는 의문문과 명령문에서 더 자주 나타나며, 문장의 목적에 따라 높임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베트남어는 서술어 변화 없이 어휘적 첨가(부사, 첨사, 보조 동사 등)를 통해 상대 높임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 'ạ', 'nhé', 'ạ', 'vâng', 'thưa', 'xin', 'mời' 등의 표현이 사용된다. 이러한 어휘적 요소들은 문맥과 화자의 의도에 맞춰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3 한국어와 베트남어 상대높임법 비교 대조

사회언어학은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순수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하나의 추상적 독립 체계로 보는 것과 달리 사회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인간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개체로 본다. 그러므로 언어는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 언어학자들의 주장이다. 최근 학자들은 상대높임법에 대해 사회언어학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을 내놓고 있다.

김혜숙(2005:386-391)은 사회언어학의 연구 방법으로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안목으로서의 두 갈래를 제안했다. 거시적 안목은 언어 정책이나 계획을 의미하며, 미시적 안목은 화자의 출신 지역, 연령, 성별, 사회 계층 등을 의미한다. 연구에서는 높임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언어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사회적 요소를 좀 더 세분화하면, 대화 참여자와 관련된 '참여자 요소'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요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참여자 요소는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 연령, 사회적 지위, 친밀도 등과 같은 상호작용적 특성을 포함하며, 상황 요소는 대화가 진행되는 맥락, 즉 공식적/비공식적 상황, 사회적 맥락, 대화의 목적 등에 따른 높임법의 실현 방식을 결정짓는다. 이와 같은 구분은 높임법이 단순히 문법적 규칙의 적용을

넘어서, 대화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자 요소는 대화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의 특성과 그들이 맺는 관계에 관한 것인데, 이를 다시 개별 요소와 관계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⁷⁾ 개별 요소는 화자의 특성 즉 나이, 성, 사회적 지위 등이 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관계 요소는 대화 참여자와 대화 관련자가 맺는 관계에 관한 것으로 나이차, 지위차 혹은 성차, 친밀도가 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줄 때 가리키는 말이다.¹⁸⁾ 마지막으로 상황 요소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분위기가 같은 상황 특성이 참여자들의 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격식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요인과 언어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 언어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본래 사회 언어학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통해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언어와 사회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진정한 사회언어학으로서의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¹⁹⁾ 한국과 베트남은 같은 동방 문화권에 속하며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한 문화가 바탕이 되어 서양과 달리 높임법이 발달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상대높임법 대조하는 연구는 그 수가 너무 적을 뿐 아니라, 내용조차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점차 늘어나는 때인 만큼 해당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하다.

3.3.1 공통점

한국어와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을 사회언어학적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높임을 결정하는 요인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7) 김미란. (2006:65)에서 인용하였다.

18) 한금원. (2018:56)에서 인용하였다.

19) 켄 티 하이 하. (2015:69)에서 재인용하였다.

첫째, 한국과 베트남은 유교 문화권에 속하며, 이로 인해 두 언어 모두에서 높임법이 발달했다. 유교적 가치관은 상하 관계와 예의를 중시하며, 이를 언어 표현으로 반영하는 높임법이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일부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언어학적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익히고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두 화자가 청자를 높이고 자기를 낮춰서 대화하는 상대높임법이 실현되고 있다. 비록 실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두 나라 모두 머릿속으로 상대높임법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로는 양국의 언어는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관계에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높임 표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비슷하다.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양국 언어 모두 높임법을 사용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높임법을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상대높임법은 모두 공적 요인, 사적 요인과 상황 요인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실현된다는 점이 있다. 즉 화자와 청자의 연령, 지위, 친근감, 상황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알맞은 높임 표현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3.2 차이점

한국어와 베트남어 상대높임법간의 차이점은 공통점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상대높임법은 주로 문법적으로 실현되지만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은 주로 높임 어휘, 어기 부사인 어휘에 의해 실현된다. 한국어 상대높임법은 주로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되는데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은 주로 어휘에 의해 실현된다. 한국어 상대높임법은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문장의 종류와 높임 등급은 종결 어미에 따라 결정된다.²⁰⁾ 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 종결어미가 달라져서 한국어 상대높임법은 아주 복잡하게 발달하였다.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은 어휘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베트남어

20) Nguyen Thai Hoang Linh (2022:56)에서 인용하였다

상대높임법은 한국어 상대높임법보다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는 문법적인 종결어미로 표현하지만 베트남어는 부사, 허사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베트남어 학습자가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학습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높임 표현 오류는 주로 종결어미에서 발생한다. 이는 종결어미가 가장 자주 사용되며, 일부가 비슷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합쇼체’인 ‘-ㅁ/습니다’나 ‘해요체’인 ‘-아/어요’는 베트남어의 높임 부사 ‘ạ’와 비슷하게 이해되어, 학습자들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문장 끝의 높임 부사 ‘ạ’를 한국어의 ‘-ㅁ/습니다’나 ‘-아/어요’로 바꿔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베트남어의 ‘ạ’와 한국어의 ‘-ㅁ/습니다’, ‘-아/어요’는 용법 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한국어 상대 높임법을 가르치기 전에, 목표 문형의 용법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차이점은, 한국어에서는 대화 상황과 상대에 따라 ‘합쇼체’나 ‘해요체’를 사용하지만, 베트남어에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높임 표현에서 높임 부사 ‘ạ’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30)

가. 대리님, 회의 언제 시작합니까?(격식체)

가. Trưởng phòng ơi, bao giờ bắt đầu họp ạ?

나. 엄마, 언제 출발해요?(비격식체)

나. Mẹ ơi, bao giờ bắt đầu đi ạ?

둘째, 한국어와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은 모두 사회언어학적으로 공적 요인, 사적 요인과 상황 요인을 고려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적 상황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첫 만남에서 무조건 높임법을 써야 하지만, 베트남에서 나이가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청자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으면 높임을 쓰고 그 반대로 청자가 화자보다 어려보이면 처음부터 반말을 쓸 수도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지위 관계가 중요하지만 베트남에서 직급이 더 높아도 나이가 더 적으면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Vu Tien Dung(2003:78)

은 “베트남어의 예의 표현에서 화자가 청자와의 간격을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대화에서 이름 앞에 지위를 가리키는 명사를 자주 사용하는 반면에, 화자와 청자 간에 친밀한 관계를 표시하려면 이름 앞에 지위를 가리키는 명사를 붙여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베트남과 한국의 언어적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베트남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와 대화할 때 반드시 문장에 주어를 포함시키고, 문장의 끝에 높임을 나타내는 부사인 'ạ'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격식체를 사용할 때 문장의 끝에 '-ㅓ/습니다'와 같은 높임 표현을 쓰는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ạ'와 같은 높임 부사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보조 동사인 'Xin', 'Thưa', 'Mời' 등을 사용하여 존경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와 같은 언어적 차이는 두 나라의 문화적 가치와 상하 관계의 표현 방식에 뚜렷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31)

가.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Từ bây giờ bài thuyết trình xin được bắt đầu.

나.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Xin được một lần nữa cảm ơn sự tham gia của ngài Giám Đốc.

셋째, 사적 요인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가족 간에 높임말이 점점 사용하지 않고, 반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사적 관계에서는 높임법이 점차 없어지고 있고, 공적 관계에서만 특히 직장에서만 높임법이 아직까지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켄티하이하(2015:67)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사적 관계든 공적 관계든 모두 윗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두 사람이 친할수록 반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 나이 차이가 크면 반말을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²¹⁾

마지막으로, 넷째로는 같은 의미의 예문을 양국 언어로 동일하게 표현

21) 켄 티 하이 하(2015:69)에서 참고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되더라도 문맥을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문장의 주체나 대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시-’와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높임 표현을 구현한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는 대화 중 일부 문장에서 높임 표현을 생략하고, 비격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반면에 베트남어 역시 말하는 대화 상황인 경우에는 높임 표현인 ‘ạ’[아]를 매번 사용하지 않아도 높임 표현에 있어 크게 어긋나지 않지만, 주어를 생략하면 한국어와 달리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 문화권이라 높임법이 발달 - 화자가 자기를 낮추고 청자를 높이는 상대높임법이 실현 - 상황에 따라서 높임법이 다르게 표현 - 공적요인, 사적요인, 상황요인 등에 의해 높임법이 결정 	
차이점	한국어	베트남어
	- 종결어미에 의해 실현	- 어휘에 의해 실현
	- 나이보다 지위관계가 중요	- 지위 관계보다 나이가 중요
	- 사적상황에서 나이에 상관 없이 대개 높임법을 사용	- 청자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으면 대개 높임법을 사용하고, 반대의 경우 반말을 사용
	- 부모와 자녀간 대화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반말 사용 가능	- 부모와 자녀간 대화에서 자녀는 항상 높임말을 사용
	- 사적관계는 높임법이 점점 없어지고, 공적관계에서만 높임법이 엄격하게 유지	- 사적관계, 공적관계 모두 윗 사람에게 높임말을 사용
	- 비격식적 상황에서 반말 사용 가능	- 비격식적 상황에서 반말 사용 불가능
	- 주어를 생략할 수 있음	- 주어를 생략하면 이해하기

	어려움
--	-----

[표 2] 한국어 상대높임법과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의 비교 대조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을 나타냈다.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상대높임법은 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상대높임법에 관련되는 비언어적 요소들은 사회신분, 연령관계, 부부, 성별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을 통해 드라마를 선정할 때 이 요소들을 참고해서 드라마를 선정해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상대높임법과 베트남어 상대높임법의 공통점- 차이점을 잘 살펴보았기 때문에 공통점이면 어렵지 않지만, 차이점을 바탕으로 IV장에서 실제 학습자의 어려움은 동일하는지 연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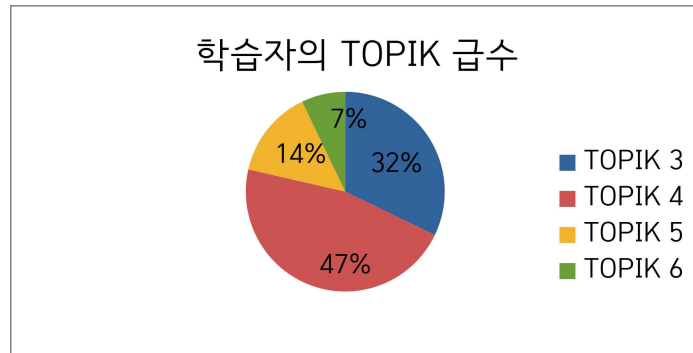


IV.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

4.1 조사 대상

일반적으로 상대높임법에 대한 교육은 초급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급 단계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드라마의 언어가 대체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 간의 일상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급 학습자들은 드라마의 대사와 전반적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드라마라는 시청각 자료가 오히려 학습 동기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초급 단계에서는 '합쇼체'와 '해요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내재화되어 있지만, 반말인 '해라체'와 '해체'를 포함한 높임법의 사용에 대해서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상대높임법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 나이, 발화 장소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언어 현상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상대높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중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상대높임법을 드라마를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구글폼을 사용하여 진행되었고 조사 참여자는 28명의 한국어 학습자이다. 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18명으로 구성되었고, 나이별로는 25세 이상은 12/28명, 18-25세는 16/28명이다. 본 조사에서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수준은 토픽(TOPIK) 성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참여자의 한국어 학습 수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그림 2] 학습자의 TOPIK 급수

[그림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중급 단계인 3급부터 고급 단계인 6급까지로 한정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가 가진 한국어 수준을 등급별로 분류하면 TOPIK 4급이 47%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TOPIK 3급은 32%, TOPIK 5급은 14%, 그리고 TOPIK 6급이 7%로 나타났다.

4.2 조사 내용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학습자들과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들 간의 높임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높임법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상대높임법을 중심으로 높임법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설문 대상자의 인적사항, 한국어 상대높임법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지식수준, 상대높임법을 써야 하는 다양한 상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대상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문 대상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녹음수집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어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으로 대체하였다.

한국에 유학 중인 학생들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지 않기 위해, 중급 단계 이상인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 학습자(11명)와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학습자(17명) 총 28명을 선정하여 동일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본 문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특히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의 상대높임법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교수·학습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지는 아래표와 같이 개인정보, 한국어 학습, 한국어 높임법 인식,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에 관한 요구와 한국 드라마를 활용한 교육에 관한 요구 5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구분	문항 내용
개인정보	- 성별, 나이, TOPIK 급수
한국어 학습	- 한국어 공부 기간, 한국어 공부 교재, 공부 장소
한국어 높임법 인식	- 한국어 높임법 개념 및 중요성 - 한국어 높임법 체계
한국어 상대 높임법 교육	- 한국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 (문법적/ 사회언어학) -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공부 방법 -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어려운 점
한국 드라마를 활용한 교육	-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 - 요즘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 - 한국어 상대 높임법 교육에 한국 드라마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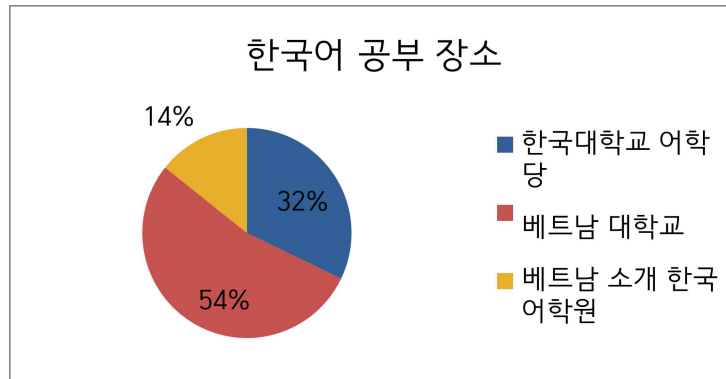
[표 3] 설문조사의 문항 내용

4.3 조사 결과 분석

4.3.1 한국어 학습 기간과 장소

먼저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한 장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습자들은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얼마 동안 공부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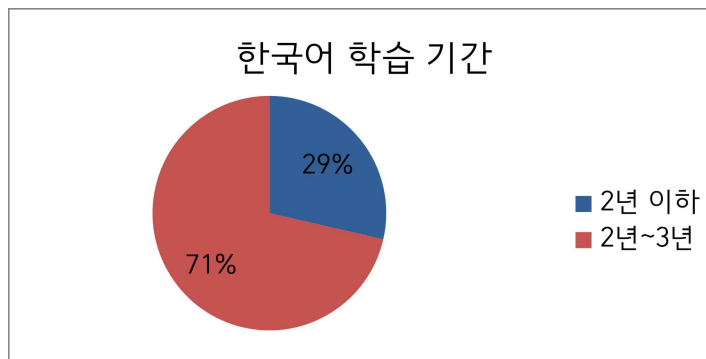
(1)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그림 3] 한국어 공부 장소

조사에 참여하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한 장소는 3곳으로 나뉜다. 한국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모두 한국 대학교의 언어교육센터에 다니는데, 이는 전체 설문조사 대상의 32%를 차지하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베트남 대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전체 설문조사 대상의 54%로, 베트남 소재 한국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전체 설문조사 대상의 14%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

(2) 한국어를 얼마 동안 배웠습니까?



[그림 4] 한국어를 공부하는 기간

조사에 참여하는 설문대상이 한국어를 공부한 기간은 ‘2년 이하’와 ‘2년-3년’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2년 이하는 29%를 차지했으며, 2년에서 3년은 71%로 나타났다. 한국어 TOPIK 급수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년 동안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대부분 중급 학습자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3.2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

(3) 한국인과 이야기할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까?

대부분 학습자들은 한국인과 이야기할 때 사용하지만, 어색한 느낌을 많이 느꼈다고 답하였다.

(4) 한국어 높임법은 객체높임법,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이 있는데 3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한국어 높임법이란 화자가 대상이나 청자에 대하여 그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일컬으며, 이는 문법적으로 표현하거나 어휘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한 후 높임법을 높이는 대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한국어 높임법이 주체높임법, 상대높임법, 객체높임법 3가지로 “구분할 수 없다” 라고 3명 응답하였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5명이 있었다.

(5) 아래 문장에서 높임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찾으세요.

먼저 한국어 높임법을 높이는 대상에 따라 3개로 나누었다. 아래와 같이 주체 높임법, 상대높임법, 객체높임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예시들을 주었다.

<주체높임법>

1. 동생이 집에 왔다.
2.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다.

<객체높임법>

3.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다.
4. 아버지께 과자를 드렸다.

<상대높임법>

5.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6. 미주야, 부탁이 있어

높이는 대상에 따라 사용하는 문법적 요소가 다른데, 학습자가 이들 문장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위와 같은 예시를 제시했다. 일부 학습자들은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이라는 개념을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 문장들이 높임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5.1) 1번과 2번 문장에서 쓰인 높임 표현을 골라보세요.

1번 문장은 동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안 쓰지만, 2번 문장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셨다” 써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셨다”는 높임 표현이라고 알고 있다.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께서’, ‘-시’, ‘주무시다’, ‘계시다’ 등의 특수 어휘로 실현되고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고 설명해 줬다. 이 높임 표현은 주체높임이라고 설명하였다.

(5.2) 3번과 4번 문장에서 쓰인 높임 표현을 골라보세요.

3번은 동생에게 주는 행동은 높임 표현은 안 쓰고 4번 문장은 아버지께 주는 행동이다. 객체높임법은 목적어와 부사어와 같은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모시다’, ‘드리다’ 등 특수 어휘와 ‘께’로 실현된다고 설명하였다.

(5.3) 5번과 6번 문장에서 쓰인 높임 표현을 골라보세요.

5번 문장은 아버지와 말하기 때문에 ‘있어요’를 사용하지만, 6번 문장은 현주가 친구 동생과 말하기 때문에 ‘있어’만 사용했다. 상대높임법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ㅁ니다’, ‘-아/어요’, ‘아/어’, ‘-어라’ 등으로 나눈다고 설명하였다.

28명의 조사 대상 중 위의 설문에서 높임법이 사용된 것은 알고 있지만, 높임 대상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한 8명에게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 후 전체 조사대상에게 어느 높임법이 가장 어려운지 질문하였는데, 그들 모두 상대 높임법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상대높임법을 어렵게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문항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 학습 장소	상대높 임법에 대한 인식	상황에 따른 상대 높임법 사용	상대 높임법이 어려운 이유
한국어 능력					
3급	2년이하	베트남 한국어 학원	모른다	조금 안다	문법

3급	2년~3년	한국 대학교 어학당	안다	조금 안다	문법
3급	2년~3년	한국 대학교 어학당	안다	조금 안다	문법
3급	2년~3년	베트남 대학교	안다	잘 안다	문법
3급	2년이하	베트남 대학교	안다	조금 안다	문법
3급	2년~3년	베트남 대학교	안다	잘 안다	문법
3급	2년이하	베트남 대학교	안다	조금 안다	문법
3급	2년~3년	한국 대학교 어학당	안다	조금 안다	문법
3급	2년이하	한국 대학교 어학당	안다	조금 안다	문법
4급	2년~3년	베트남 대학교	안다	잘 안다	상황
4급	2년이하	베트남 대학교	안다	잘 안다	문법
4급	2년~3년	베트남 대학교	안다	조금 안다	문법
4급	2년~3년	베트남 대학교	안다	잘 안다	문법
4급	2년~3년	베트남 대학교	안다	잘 안다	문법
4급	2년이하	한국 대학교 어학당	안다	조금 안다	문법
4급	2년이하	베트남 대학교	안다	모른다	문법
4급	2년~3년	베트남 한국어 학원	안다	조금 안다	문법

4급	2년~3년	한국 대학교 어학당	모른다	조금 안다	문법
4급	2년~3년	한국 대학교 어학당	안다	잘 안다	문법
4급	2년~3년	한국 대학교 어학당	안다	잘 안다	문법
4급	2년~3년	한국 대학교 어학당	안다	잘 안다	문법
5급	2년~3년	베트남 대학교	안다	잘 안다	문법
5급	2년이하	한국 대학교 어학당	안다	잘 안다	어렵지 않은데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는 헛갈린다.
5급	2년~3년	베트남 대학교	안다	잘 안다	문법
5급	2년~3년	베트남 대학교	안다	잘 안다	문법
6급	2년~3년	베트남 대학교	안다	잘 안다	어렵지 않은데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는 헛갈린다.
6급	2년이하	한국 대학교 어학당	안다	잘 안다	어렵지 않다

[표 4] 한국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는 상대 높임법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이 한국어 상대 높임법에 대해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표 2]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학습자들이 배우는 기간은 2년 이하의 학생이 8명이 있고, ‘2년-3년’이 20명을 차지하였다. 이 중 베트남에서 배우는 학습자와 한국에서 배우는 학습자 사이에 한국어 능력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국어를 배운 기간이 똑같이 2년이어도 베트남에서 배운 학습자는 중급 수준으로 해당되는 반면에 한국에서 배우는 학습자는 고급 수준으로 위치하였다.

두 번째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상대높임법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명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세 번째로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사용할 때 나이가 중요하지만,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친분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은 12명이고 잘 아는 사람이 13명으로 차지하고 3명만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요소를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설문 조사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들은 한국어 높임법 중 상대높임법이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28명 중 3명은 높임법을 안 쓴다고 응답하였다. 이 때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확인해 보았다. 응답자들은 한국어로 대화할 때는 ‘-(으)시’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다보니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합쇼체’, ‘해요체’는 대부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합쇼체’, ‘해요체’가 한국어의 대표적인 종결 어미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합쇼체’, ‘해요체’ 문법이 단순하게 문장의 종결 어미라고 이해하고, 상대높임법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한국어의 높임법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가진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사들을 토대로 한국어를 학습할 때, 높임법 교육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한국어의 높임법의 어려운 정도에 대한 설문에 대해 베트남인 학습자가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인 학습자 중에 한국어가 상대높임법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오직 1명밖에 없었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2명이 있었으며, 나머지 학습자들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는 한국어의 상대높임법을 대부분 어려워한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대부분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상대높임법을 알고 있지만 한국어의 상대높임법 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보았다.

(6) 상대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안 높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문장을 보고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

(6.1) 내일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합쇼체)

(6.2) 오늘 늦게까지 수업했네요. (해요체)

(6.3) 괜찮아. 나는 말짱해. (해체)

(6.4) 밥 먹고 공부 좀 해라. (해라체)

여기에서 학습자들은 28명 중에 25명이 맞는 답을 찾았지만 3명은 틀렸다. 왜 틀렸는지 메시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질문했을 때 한국어 ‘해라체’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대부분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상대높임법의 표현을 잘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합니까?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상대높임법의 표현을 잘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질문해 보았을 때 잘 아는 사람이 15명밖에 없고, 12명은 잘 알지 못하지만 조금 알고 있는 답으로 응답하였다. 전혀 모르는 학습자는 1명만 있었다.

(8) 아래 상황과 같은 대화할 때 적절한 답을 찾으세요.

설문조사는 총 5개의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화행별 상황 내용 구성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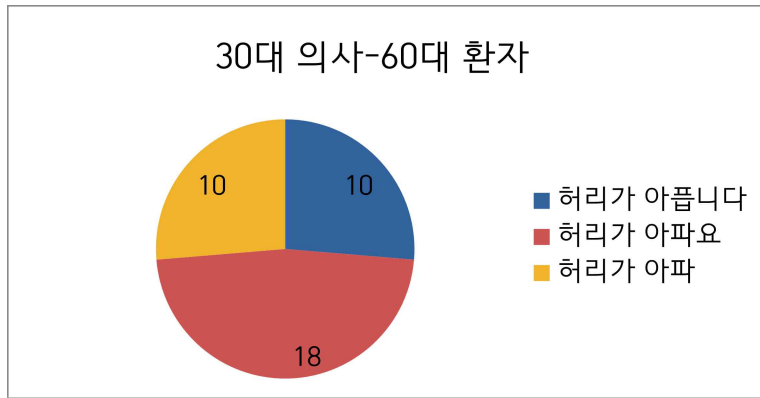
음과 같이 30대인 의사와 60대인 환자, 회사에서 30대인 차장과 50대인 과장, 집에서 엄마와 딸, 식당에서 교수님과 학생, 강의실에서 발표할 때 교수님과 대화로 5가지 상황을 제시하였다.

상황 제시	문장 제시	응답자 수 (명)
8.1) (공적- 나이) 병원에서 30대 의사와 60대 환자 의사: 어디 아프세요? 환자: _____	허리가 아픉니다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	18 10 10
8.2) (공적- 지위) 회사에서 30대 차장과 50대 과장 차장: 오늘 회의 했어요? 과장: _____	오늘 회의했습니다. 오늘 회의했어요. 오늘 회의했어.	10 14 7
8.3) (사적- 친밀성) 집에서 엄마와 딸 엄마: 밥 먹었어? 딸: _____	네, 저는 먹었습니다. 네, 저는 먹었어요. 네, 나는 먹었어	20 22 1
8.4) (상황- 사적) 식당에서 교수와 학생 교수: _____ 학생: 치킨을 먹을래요	뭐 먹습니까? 뭐 먹을래요? 뭐 먹을래?	5 20 25
8.5) (상황- 공식적) 강의실에서 발표할 때 교수와 학생 교수: _____ 학생: 없습니다.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어?	5 15 10

[표 5] 상황 제시를 통해 한국어 상대높임법에 대한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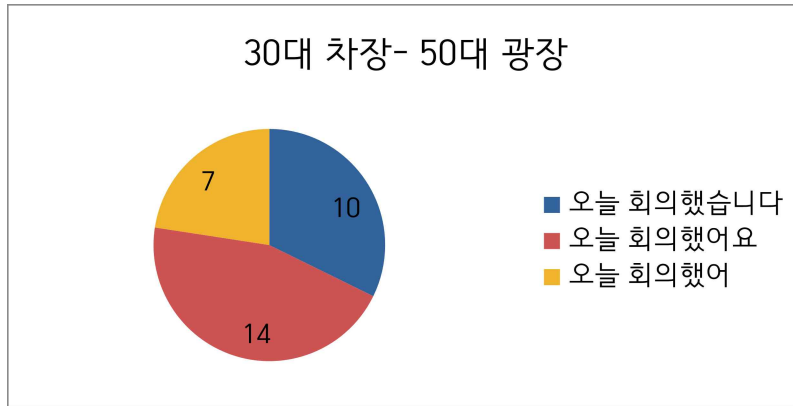
[표 5]를 보면 각 상황에 맞게 문장들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전부 고르라고 설문하였기 때문에 답은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까지 고를 수 있다. 각 설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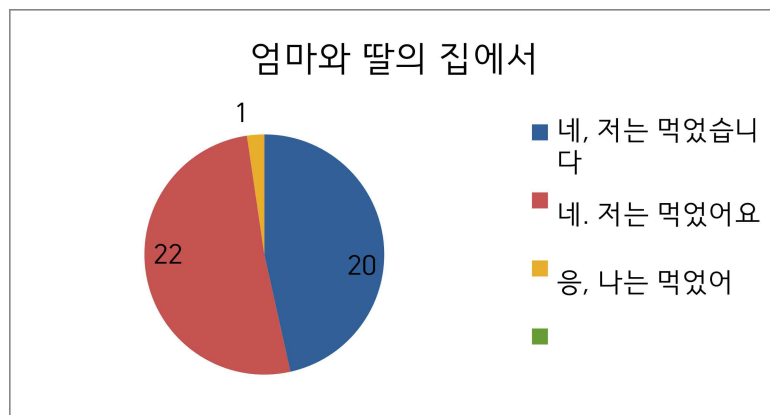
[그림 5] 30대 의사와 60대 환자의 병원에서의 대화 상황

첫째, 상황 8.1)에서는 응답자들의 18명이 ‘허리가 아파요’라고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10명이 ‘허리가 아픉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허리가 아파’라는 말은 10명이였다. 베트남어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말할 때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상황에서 60대인 환자는 30대인 의사보다 나이가 더 많으므로 ‘허리가 아프다’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모르는 관계일 때, 나이에 상관없이 높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픉니다’, ‘허리가 아파요’라고 답을 고른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학습자들도 있지만, ‘허리가 아프다’를 고른 학습자들처럼 아직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나중에 주의해서 교육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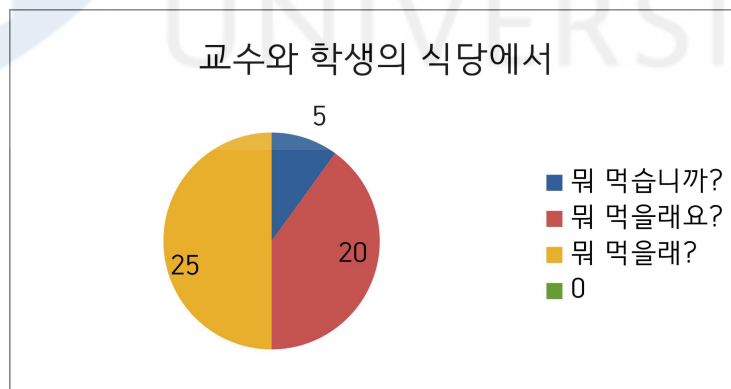
[그림 6] 30대 차장과 50대 과장의 회사에서의 대화 상황

둘째, 상황 8.2)에서는 회사에서 나이가 적지만 직급이 더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과장보다 차장이 더 높은 직급이다. ‘회의했습니다’는 14명이 선택하였고, ‘회의했어요’라는 10명이 선택하였다. 이 상황에서 높임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도 7명이 있었다. 상황 8.1)에서 언급했듯이, 베트남어를 기준으로 는 직급보다 나이가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50대인 과장은 30대인 차장에게 반말로 ‘오늘 회의 했어’로 답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직장에서 나이보다 직급이 더 중요한 요소라, 나이가 더 적어도 상사라면 높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림 7] 엄마와 딸의 집에서의 대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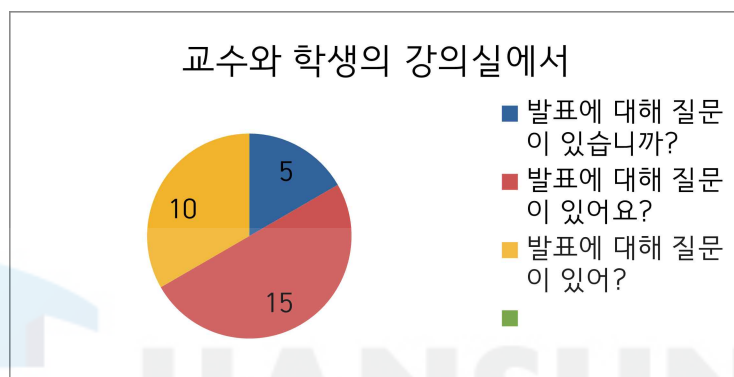
셋째, 상황 8.3)은 엄마와 딸의 대화이다. 엄마는 딸에게 ‘밥 먹었어?’라고 묻는 질문에 ‘저는 밥 먹었습니다’를 고른 사람은 20명이고, ‘저는 밥 먹었어요’를 고른 사람은 22명이었으며, ‘저는 밥 먹었어’라는 답은 한 명이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세 개 모두 다 정답이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나는 먹었어’, ‘저는 먹었어요’로 대화한다. 대부분 학습자들이 ‘저는 먹었습니다’와 ‘저는 먹었어요’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베트남어를 기준으로 부모님과 자식 관계에서 반말을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높임말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부모님과 자식이 대화할 때 관계가 친밀할 경우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에서 주어 없이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라고 하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저는 밥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관계의 거리가 멀고 친한 느낌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다. 베트남어에서는 높은 사람과 대화할 때 주어와 ‘ạ’를 생략하는 것이 항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로 대화할 때 한국인에게 조금 어색한 느낌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교수와 학생의 식당에서의 대화 상황

넷째, 8.4) 상황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식당에 있는 상황이다. ‘뭐 먹을래?’라는 말은 25명이 선택하였고, ‘뭐 먹을래요?’라는 말은 20명이 선택하였으나, ‘뭐 먹습니까?’라는 5명만 선택하였다.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은

교수의 입장에서 세 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학생과의 친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이다. 위의 경우를 보면 베트남인 학습자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교수님이 학생에게 높임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어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중에도 본국의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림 9] 교수와 학생의 교실에서의 대화 상황

마지막으로 8.5) 상황도 교수님과 학생의 대화이지만, 식당이 아니라 교실에 있는 상태이다.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라고 고른 사람은 10명이고,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라고 고른 사람은 15명이 있었으나,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니?’라고 고른 사람은 5명뿐이었다. 상황 8.4)와 같은 사람들의 대화인데 대화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공식 장소인 교실에서 높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은 잘 대답했지만, 5명이 틀리는 이유는 베트남어에서는 공식 장소인 교실에 있어도 학생이 교수보다 나이가 적어서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설문조사가 조사를 진행한 대상에 다양한 그룹이 포함되지 않았고, 특정한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해당 논문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논지를 계속 전개해보려 한다. 조사 결과, 학습자들이 높임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상대높임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로 높임법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높임법을 격식체, 비격식체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학습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대부분 학습자들은 상대높임법의 개념을 모르지만 문법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답을 하였고 3명만 틀렸다. 주어진 5개의 상황에서 여러 개의 답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조사하였는데, 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습자가 상황에 적절하게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육할 때 많은 상황을 제시하고 상대 높임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대부분 학습자들은 ‘합쇼체’, ‘해요체’가 단순히 문장을 서술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상황에서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니 ‘합쇼체’, ‘해요체’에 대해 가르칠 때 이 표현이 문장을 서술하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표현임을 설명해 준다면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대부분 한국어 상대높임법이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중에 ‘어렵지 않다’라고 대답한 3명이 있지만, 셋 다 고급 수준이고 모두 한국의 어학당에서 배운 학생이다. 그 외 다른 학습자에게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모두 한국어는 문법이 많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문법을 적용해야할지 잘 알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베트남에서 공부하는 학습자가 가진 단점은 베트남에서 한국인과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한국어 높임법의 개념을 알고 있지만, 연습할 기회가 없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는 한국어 높임법 중에 상대높임법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대높임법의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문법 표현으로만 학습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는 높임 표현의 등급을 6단계가 아닌 4단계로 간소화하여 알려줘야 한다. 한국어의 상대높임법 체계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지고, 친밀도에 따라 높임과 안 높임으로 구분된다. 반면, 베트남어는 높임 표현 ‘ạ’를 사용하지만,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이 없고, 친밀도에 따른 높임법 변화도 없다. 이로 인해 베트남인 화자들은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중 하나로 한국어에서는 상황에 따라 반말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베트남어는 항상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특징 등이 있다.

한국어 상대높임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단순한 문법 실수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높임법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부적절한 높임법 사용은 예의 없거나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인 화자가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실제 상황에 맞는 발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사용법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높임 표현을 비교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높임법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상대높임법의 개념, 지식과 쓰는 방법에서 상대높임법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쓰는 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3.3 한국어 높임법 학습 경험

(9) 무슨 교재로 한국어를 배웠습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대학교, 한국어 학원에서 대부분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여 공부한다고 한다. 베트남에 있는 학습자들은 대부분 한국어는 교재를 통해 배운다고 하였고 때문에, 그 속에서 상대높임법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 교재를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수교한 뒤부터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되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그 중에 2008년에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출판된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는 많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교재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

에 베트남인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해당 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여 한국어 높임법에 관련된 부분을 다뤄보고자 한다. 베트남인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2008년에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여 출판해 왔다.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는 베트남 현지의 특성에 맞추기 위하여 베트남어로 작성되었고 한국과 베트남의 비교 및 대조를 바탕으로 편집해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재는 베트남에 있는 많은 대학교가 주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 교재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습 부분은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말하기 부분은 ‘알아봅시다’, ‘이야기해 봅시다’, ‘더 알아봅시다’로, 듣기 부분은 ‘알아봅시다’, ‘들어 봅시다’, ‘더 알아봅시다’로, 읽기 부분은 ‘알아봅시다’, ‘읽어 봅시다’, ‘더 알아봅시다’로, 쓰기 부분은 ‘알아봅시다’, ‘써 봅시다’, ‘더 알아봅시다’로 구성된다. 각 연습 항목은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학습자가 한국어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데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라서 교재 전체는 베트남어로 작성하게 되었으며 베트남의 문화에 관련된 내용도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의 특징이 되었다.



[그림 10]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 소개 사진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는 1권~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급 1+2, 중급 3+4, 고급 5+6에 해당한다. 이 교재는 ‘소개, 학교, 음식 등 주요 일상생활에 관련된 총 16가지 주제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교재의 구성은 기본 어휘, 기본 문법, 말하기, 듣기, 쓰기, 발음, 문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교재에서 한국어 상대높임법에 관련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재의 내용을 상대높임법의 등분에 따라서 분석하기로 했다. 한국어 상대 높임을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져 있다. 격식체는 ‘합쇼체’, ‘해라체’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비격식체는 ‘해요체’, ‘해체’로 표현할 수 있다. 교재에서는 한국어 상대 높임이 어떻게 나오는지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교재명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권수		1	2	3	4-6
주 체 경 어 법		-(으)세요. - 께서/께서는 - (으)시 - 특수 어휘	-	-	-
	객 체 경 어 법	- 에게-한테-께	- 아/어드리다.	-	-
	상 대 경 어 법	- 입니다 - 입니까? - 에 있습니다. - 이/가 아닙니다. - ㅂ/습니다. - ㅂ/습니까? - (으)ㅂ시다.	-	- 다/ㄴ다/는다 - 니/냐? - 자 - 아/어라 - 구나/는구나	-
	비 격 식 체	- 아요/어요. - (으)ㄴ 까요?	- 지요? - 네요	- 군요. - 아/어(‘요’ 생략)	-

[그림 11]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높임법

[그림 11]을 보면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는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 내용이 있다. 본 연구에서 상대높임법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 상대높임법과 관련된 내용만 제시하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음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의 상대높임법 격식체 ‘합쇼체’는 초급 단계부터 1권의 1과, 34쪽에서 ‘- 입니다’와 ‘- 입니까?’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2과, 54쪽에서 ‘- 에 있습니다’와 ‘- 이/가 아닙니다’를 제시한다. 3과, 74쪽에서 ‘- ㅂ/습니다’와 ‘- ㅂ/습니까?’를 가르친다. 6과, 134쪽에서 ‘- (으)ㅂ시다’를 교육한다. 2권의 6과, 119쪽에서 ‘- 지요?’를 가르친다. 3권의 7과, 127쪽에서, ‘- 군요’를 제시한다. 3권의 9과, 199쪽에서 비격식체 반말을 통해 ‘해체’의 ‘아/어/여’를 가르친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에 따라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는 초급 가장 초반 제1과부터 상대 높임법 격식체 ‘합쇼체’의 ‘ㅂ/습니다’, ‘ㅂ/습니까’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으)ㅂ시다’를 초급 중반부터 교육한 것이다. 다음은 비격식체 ‘해요체’ 및 ‘해체’는 초급 단계부터 중급 단계까지 거의 비슷한 양으로 배분해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 교재에서 어떻게 제시하는지 다음 예시로 살펴보았다.

● **-ㅂ/습니다** **Đuôi kết thúc câu trần thuật**

Là đuôi câu được gắn vào sau thân động từ hoặc tính từ thể hiện sự đề cao người nghe khi tường thuật lại một sự thật hay suy nghĩ của bản thân. Đuôi câu này tạo cảm giác trang trọng và được dùng trong các tình huống mang tính nghi thức. Nếu thân từ kết thúc bằng nguyên âm thì kết hợp với dạng **-ㅂ니다**, còn thân từ kết thúc bằng phụ âm thì kết hợp với dạng **-습니다**.

유진 씨가 잡니다.

Cô Yu Jin đang ngủ.

학생이 공부합니다.

Học sinh học bài.

가방이 작습니다.

Cái túi nhỏ.

● **-ㅂ/습니까** **Đuôi kết thúc câu nghi vấn**

Là đuôi kết thúc câu dạng nghi vấn của đuôi kết thúc câu trần thuật **-ㅂ/습니다**. Nếu thân từ kết thúc bằng nguyên âm thì kết hợp với dạng **-ㅂ니까**, còn thân từ kết thúc bằng phụ âm thì kết hợp với dạng **-습니까**.

A 지원 씨가 일합니까?

A Anh Ji Won đang làm việc à?

B 네, 지원 씨가 일합니다.

B Vâng, anh Ji Won đang làm việc.

A 가방이 큼니까?

A Cái túi to không?

B 아니요, 가방이 작습니다.

B Không, cái túi nhỏ.

[그림 12] 제3과 일상생활 기본 문법²²⁾

가. 유진 씨가 잡니다.

나. Cô YuJin đang ngủ.

위에 예문은 격식체 합쇼체의 예문이다. 종결 어미에 따르면 예문은 평서 문임을 알 수 있다.

가. 지원 씨가 일합니까?

나. Anh Ji Won đang làm việc à?

위에 예문은 격식체 합쇼체의 예문이다. 종결 어미에 의해 예문은 의문문임을 알 수 있다.

22)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1』 제3과에서 인용하였다.

교재에서 나오는 한국어 상대높임법에 관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합쇼체’로 설명하지 않고 간단히 기본 문법으로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존중한 느낌을 주고 예의를 가져야 한 상황에서 사용하고 받침이 있으면 ‘-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으)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 문법은 격식체인지 비격식체인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존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한다고 적혀있지만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지 알기 힘들다.

한국어 상대높임법은 간소화하여 격식체의 ‘합쇼체’, ‘해라체’와 비격식체의 ‘해요체’, ‘해체’로 나누어져 있지만, 교재는 격식체의 ‘합쇼체’와 비격식체의 ‘해요체’만 언급하였다. 이렇듯 해당 교재는 상대높임법 관련 부분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어 학습자가 상대높임법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족한 점들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상대높임법은 학교 문법을 기준으로 격식체의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와 비격식체의 ‘해요체’, ‘해체’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상대높임법을 학습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상대높임법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는 주로 격식체의 ‘합쇼체’와 ‘해라체’, 비격식체의 ‘해요체’와 ‘해체’를 사용한다. 설문 조사와 부합하게 현재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상대높임법 존재를 잘 알고 있지만, 교재를 통해 문법적으로만 배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높임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대부분 모르는 상황이다. 설문 조사에서 상대높임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28명 중에서 대부분인 23명이나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상황별로 상대높임법 활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지만 교재에서 전혀 그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문법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상황들을 제시하여 상대높임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황별 요인인 공식적 관계, 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드라마 장면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였다. 드라마의 교육적인 가치들은 특히 언어교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드라마

를 통해 문화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를 보여줄 수 있으며, 실제 발화 상황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상대높임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다. 드라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재가 제시하는 실제적이지 않은 교육내용과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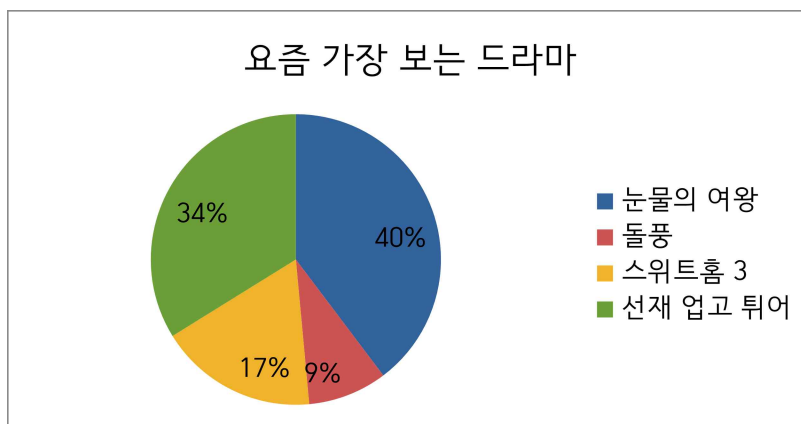
4.3.4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공부를 학교나 학원에서만 하냐고 했을 때, 대부분 학습자들은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답변을 받았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은 다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하였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 연관된 질문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10)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설문 조사를 보면 28명 중에 28명 모두 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11) 요즘 무슨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까? 2024년 8월 설문 조사: 4개 드라마 중 최근에 본 드라마 응답



[그림 13] 요즘 가장 많이 보는 드라마

조사에 있는 드라마 4개는 눈물의 여왕(로맨틱코미디), 선재 업고 튀어(로맨스), 스위트홈3(액션)과 돌풍(정치)로 한국 드라마의 다양한 장르를 포함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정치와 액션보다는 로맨스와 로맨틱코미디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드라마의 선정 기준과 적절한 교수·학습 방안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상대높임법에 대한 접근을 문법적 측면보다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분석을 통해, 상대높임법의 화제 등급에 따른 사용 양상보다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른 상대높임법 표현의 변화에 주목한다. 드라마 장면을 통해 상대높임법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높임법의 적용 방식을 분석한다. 드라마의 인물 관계는 부모와 자식, 친구, 부부, 형제 자매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높임법 사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위의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은 이미 규범적, 실용적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높임법을 구사하지만, 중급 수준의 학습자는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5장에서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은 중급 학습자로 중심으로 한다.

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루하고 어려운 한국 가족 문화, 직장 문화 등을 영역에서 흥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로맨틱하면서도 코믹한 요소를 담고 있는 한국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고, 한국어를 교육받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한국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의 상대높임법은 전통적인 학교 문법에서는 여섯 가지 체계로 나누어지지만, 국립국어원(2005)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상대높임법을 4등급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격식체 높임 표현인 ‘합쇼체’, 비높임 표현인 ‘해라체’, 비격식체 높임 표현인 ‘해요체’, 그리고 비높임 표현인 ‘해체’로 구분된다. 본 연구 제3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 상대높임법 체계 중 ‘해요체’와 ‘해체’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국립국어원(2005)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의 체계를 따르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체계화가 필요하다.

상대높임법 교육에서 제시 순서는 보통 체계와 등급에 따라 이루어지며, 본 연구에서는 상대높임법의 제시 순서가 실제 생활에서의 사용 빈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고 본다. 설문조사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교재와 수업을 중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교재나 교수 자료에서 문법의 제시 순서는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재에서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드라마를 활용한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을 탐색하였다. 드라마를 통한 교육은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높임법 사용을 반영할 수 있어, 학습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상대높임법 교육의 측면에서 드라마를 살펴보면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대체로 친구 관계나 친소관계 혹은 직장 내에서의 상하관계이다. 이는 상대 높

임 표현이 실현될 때 학습자들에게 발화 상황을 명확히 보여 줄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²³⁾ 또한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실생활의 언어와 가장 근접해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다룬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있는 자료로 선정해야 한다. 드라마 분석을 통해 등장인물이 학습자와 유사한 연령대, 상황, 인물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화 장면을 살펴봄으로써, 상대높임법의 구체적인 사용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내용이 전개되면서 한국인의 문화적,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 나타난 상대높임법의 사례를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5.1 드라마를 활용한 상대높임법 교수 - 학습 원리

교사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학습자를 지도해야 한다. 학습 과정에서 드라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교사는 교재나 부교재로 드라마를 이용하면 사회적으로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 요인을 중시하여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영상 자료를 통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학습과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드라마를 통한 교수·학습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사회관계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을 이루는 요소는 나이, 신분이나 항렬 그리고 친밀도이며 이 요소들이 상대높임법의 체계를 결정한다. 학습자들에게 상대높임법 체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회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잘 드러내는 드라마를 활용하여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들에게 상대높임법을 드라마를 통하여 인식시킨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한다. 가족 드라마와 사회 드라마를 통해서 상대높임법이 한국인의 일상

23) 고원 (2017:69)에서 인용하였다.

생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한 사회관계망에 대한 지식이 습득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들은 사회관계망에 대한 다양한 학습 기회가 적기 때문에 실제 장면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드라마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이 글을 읽고 습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시청각 모두 사용하는 실제 상황을 통해 경험하거나 드라마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습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가 한국어 교육에 유익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선정할 경우 드라마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에서 이용하기 위한 드라마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고 상대높임법 교육에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 앞에 제시하였듯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제시하였는데 선정된 매체가 학습자들의 수준에 비해 너무 높거나 낮다면 학습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선정할 때 학습에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언어문화를 잘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은 결국 제한된 학교생활 안에서 한국어 교사나 또래 한국인 친구들과의 대화가 전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대높임법 교육을 위한 드라마를 선정할 때에는 가족이나 사회관계 측면에서 다양한 양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고찰해야 한다.

셋째, 학습 자료로 사용하려는 해당 드라마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드라마 선정 기준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가장 인기가 많았던 2024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방영된 tvN 로맨틱 드라마인 ‘눈물의 여왕’을 선택하였는데, 2024년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시청자가 가장 많은 드라마이다.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드라마는 현대를 배경으로 하여 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문장들로 구성된 대화로 이루어져서 중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합하다.

둘째,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살펴볼 수 있어 상대높임법이 잘 드러나 있으며, 다채로운 장면을 제시하여 상황에 따른 한국어 고유의 상대높임법 특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한국의 실제 사회 모습과 문화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어 상대높임법 교육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자료로 간주된다.

셋째, 이 드라마는 OTT서비스인 Netflix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상대높임법의 교수-학습 원리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학습 자료인 드라마의 선정 기준과 그 부합 여부를 살펴보았다. 5.2에서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제시하겠다.

5.2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내용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 높임법이 발달하였고, 상대높임법이 실현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으나, 그 실현방식에 있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렵게 다가온다. 우선 한국어는 종결어미에 의해 상대높임법이 실현되나, 베트남어는 어휘에 의해 실현되고, 직장에서 한국어는 나이보다는 지위를 고려한 상대높임법이 실현되나 베트남어는 그 반대이다. 또한 한국어는 부모-자녀간 대화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반말을 사용할 수 있으나, 베트남어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존댓말을 해야 하고,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으나 베트남어는 주어를 생략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위의 설문조사[표5]를 살펴보면, 30대 의사에게 60대 환자가 “허리가 아파”라고 반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고른 베트남인 학습자가 10명이었고, 회사에서 30대 차장에게 50대 과장이 “오늘 회의했어”라는 반말을 선택한 학습자도 7명이었다. 이처럼 베트남인 학습자는 베트남어

에서 실현하는 높임 표현 방법을 한국어에도 적용하는 오류가 있어 아래에서 우선 ‘공적 관계’에서 실현되는 양상들을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제시된 설문조사에서 엄마와 딸의 대화에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딸이 엄마에게 반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하였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한국어는 베트남어와 달리 부모-자식, 형제-자매, 사돈, 친구,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사적 관계’를 고려하여 실현됨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설문조사에서도 교수와 학생이 식당에서 만났을 때와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 교수가 학생에게 사용하는 상대높임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베트남인 학습자들 대부분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어에서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아래에서는 공식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래 한국어 예시들 중에서 베트남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하고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만은 베트남어와 같이 병기하였다.²⁴⁾

5.2.1 공적 관계

공적 관계는 일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며 규칙과 예의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공적 관계는 대화할 때, 발표할 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5.2.1.1 대화 상황

대화에서는 크게 2가지 예시로 대화에서 인물들의 나이 차이가 있는지, 나이 차이가 없는지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1) 독립적인 사회적 위치가 있는 관계

24) 모든 대화는 넷플릭스 ‘눈물의 여왕’ 드라마에서 인용하였다.

(32) 의사: 솔직히 생존 가능성을 정말 낮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기적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

백현우: 예? 기적이라 하시면 그게 얼마만큼의 확률인지 그게 그렇게 막 자주 일어나나요?

의사: 의사 생활 30년 동안 더 어려운 병에 걸리신 분들 중에 의학적으로론 불가능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시는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희망 버리시면 안 됩니다.

위의 예문은 공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대화이다. 이 대화는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대화이다. 의사 선생님은 백현우보다 나이가 많지만, 병원은 공적인 장소이고,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보호자와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높임말을 사용한다. 여기서 우리는 화자가 높임 표현을 사용할 때 발화 상황이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인 ‘솔직히 생존 가능성을 정말 낮게 보고는 있습니다.’에서는 의사가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지만, 공식적인 보고의 성격을 지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합쇼체’를 사용했다. 그러나 바로 그 뒤를 살펴보면 ‘기적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라고 ‘해요체’를 사용하는데, 의사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함과 동시에 보호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격식체의 사용을 피했다고 볼 수 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성격을 가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합쇼체’를 사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32)과 같은 공적 상황의 경우, 나이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대화하는 환경이 더 중요하게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대화에서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공식적인 이야기는 격식체를 사용하지만, 자신의 의견이 들어간 개인적인 이야기는 비격식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대화 상황에서 격식체와 비격식체간의 이동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학습자에게 지도한다.

(32-1) Bác sĩ: Thành thật mà nói, tôi nghĩ cơ hội sống sót rất thấp,

những phép màu lại là một lĩnh vực khác.

Hyunwoo Baek: Vâng? Nếu bác sĩ nói đó là một phép lạ thì khả năng nó xảy ra là bao nhiêu và nó có xảy ra thường xuyên không ạ?

Bác sĩ: Trong suốt 30 năm làm bác sĩ, tôi đã chứng kiến nhiều người mắc những căn bệnh hiếm nghèo hơn đã sống sót một cách kỳ diệu mặc dù điều đó là không thể về mặt y tế. Bạn không được từ bỏ hy vọng.

위와 달리 베트남어에서는 사회 지위보다는 나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나이를 우선시한다. 이 상황에서 의사는 나이가 더 많아서 높임표현을 사용 하지 않지만, 보호자는 나이가 더 낮아서 높임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위의 대화를 베트남어로 번역한 예문을 살펴보면 백현우만 말할 때 에 ‘ạ’라는 높임표현을 사용하는데 베트남어는 한국어의 ‘합쇼체’와 ‘해요체’처럼 높임법을 세분하여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어로 구성된 대화에서는 주어를 계속 생략하였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될 수 없다. 이 점에서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공식적인 대화인지, 개인적인 대화인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이 점에 대해 잘 가르쳐야 한다.

2) 상하관계

(32)은 독립적인 관계일 때 하는 대화였으며, (33)에서는 상하 관계에서 나이 차이가 있을 때 하는 대화와 (34)나이 차이가 없을 때 하는 대화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1)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

대화에서 나이 차이가 있으면서 사회적 상하관계 명확한 관계이다. 회사 직장 상사 - 부하이다. 회사 관계 중에서 ‘상사-부하’으로 대표되는 직원 관계이다.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상사-부하 관계에서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33) 회사 회장과 회사 직원 간의 공식적인 대화 (회장님은 직원보다 나이가 많음)

직원: 송 팀장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입니다. 회장님.

회장님: 다들 다시 생각해.

직장에서의 실제 상대높임법 표현은 대화 참여자의 계급, 나이, 친밀도에 따라 사용이 다를 수 있다. 즉 계급 차이가 있더라도 나이와 친밀도에 따라 사적인 상황에서는 상대 높임법을 상호간에 동일한 등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32)과 같은 경우는 회사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공적인 상황에서의 대화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대화의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해라체’로 아주 낮춤 표현을 사용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합쇼체’로 아주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계급차이가 드러나면서 공적인 상황에서는 상호간에 사용하는 상대높임법의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32)는 회장님과 직원들이 회의 중인 상황이다. 상하 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회장님은 나이가 가장 많고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낮은 위치에 있는 직원들에게 비격식체인 ‘해라체’를 사용해도 되지만, 낮은 위치에 있는 직원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회장님에게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해야 함을 지도한다.

(33-1) Nhân viên: Cuộc điều tra ban đầu về Trường nhóm Song đã kết thúc, nhưng các luật sư của chúng tôi cho rằng mọi chuyện khó có thể dừng lại ở đó thưa chủ tịch.

Chủ tịch: Mọi người hãy suy nghĩ lại.

이와 같이 베트남어에서 직급이 더 낮은 사람이 직급이 더 높은 사람에게 높임표현인 'thưa'를 쓴다. 베트남에서도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직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바탕으로 대화 상황에서 나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사회적 위치가 있으면 서로 상대 높임법을 쓰면서 서로 존중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상하 관계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만 높임 표현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나이 차이가 없는 관계

(1)에서는 나이 차이가 있으며 직급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고 직급이 더 높은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낮은 사람은 반드시 '합쇼체'를 썼다. 반대로 나이 차이도 없으며 직급도 동일할 때 대화에서 높임 표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찾아보았다.

(34) 회사 직원 간의 개인적인 대화

직원1: 아, 나 사장님 다이아에 눈썹 맞았어

직원2(비서): 자, 지금부터 공작새 하나를 발령합니다. 긴장들 하자고.

직원3(신입사원): 죄송한데 '공작새 하나'가 뭐예요?

직원2(비서): 그래 너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지. 아까 사장님 옷 어땠어?

직원3(신입사원): 예쁘던데요?

직원1과 직원2는 직급과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비격식체 반말인 '해체'를 사용하지만, 직원2와 직원3은 나이가 비슷하지만 직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격식체 높임말인 '해요체'를 사용한다.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는 사회적 관계와도 관련되어 있어, 직급과 나이가 비슷하면서 친근함을 느낀다면 반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직급 차이가 많이 나고 들어온 지 친근감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비격식체 높임말인 '해요체'를 사용한다고 학습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베트남어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 대화 또한 베트남인 학습자

에게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예문들을 통해 한국어에서는 공식적인 대화에서 나이, 사회 지위에 따라서 높임 표현을 달라지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5.2.1.2 발표 상황

(35) 홍해인 사장이 기자들에게 공개 발표하는 상황

홍해인 사장: 저와 윤 회장님은 대학 때부터 오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런 윤 회장님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 남편이자 법무 이사였던 백현우 씨에게 어떤 혐의라도 뒤집어씌워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증명할 녹취 자료를 가자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홍해인 사장이 기자 회견장이라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청자를 대상으로 ‘합쇼체’를 사용하고 있다. 화자인 홍해인 사장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인 윤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더라도 ‘윤 회장님’이라는 자리에 부합하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였고, 청자로 설정된 기자들에게 ‘-습니다’라는 ‘합쇼체’의 평서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합쇼체’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학습자에게 지도한다.

(35-1) Chủ tịch Hong Hae-in: Chủ tịch Yoon và tôi đã là bạn lâu năm từ khi còn học đại học. Tôi đã bị Chủ tịch Yoon đe dọa. Đó là lời đe dọa rằng họ sẽ buộc tôi chồng tôi la giám đốc pháp lý, Baek Hyeon-woo, về mọi tội danh và đưa anh ấy vào tù. Tôi yêu cầu ghi âm để chứng minh điều này.

이와 같이 공식적인 발표를 할 때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모두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발표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어는 상황에 따라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베트남어는 주어를 생략할 수 없다. 또한 베트남어는 위에서 보듯 높임표현이 사용되지 않지만, 반대로 한국어는 공식적인 발표를 할 때에 반드시 격식체인 ‘합쇼체’를 쓰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공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예문들을 살펴보면 공적인 관계에서는 지위와 이야기하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만나도 서로 격식체 높임말인 ‘합쇼체’를 사용하거나 비격식체이지만 높임말인 ‘해요체’를 사용할 수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직급이 더 낮으면 보고하는 상황에서 격식체 높임말인 ‘합쇼체’를 사용하며, 직급이 높은 사람의 경우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해요체’도 사용할 수 있고 ‘해체’도 가능하다. 그리고 발표 상황에서 반드시 ‘합쇼체’를 사용해야 한다.

5.2.2 사적 관계

사적 관계는 위계와 친밀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드라마에서 우선 사적인 위계에 따라서 부모님과 자식, 형제-자매, 사돈의 관계로 분석하고, 다음으로 관계의 친밀성에 따라 친구, 동료, 세입자로 분석하였다.

5.2.2.1 부모 - 자식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친밀도에 따라서 높임 표현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 드라마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친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자식, 처부모와 자식으로 분류하였다.

1) 친부모와 자식

(36)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서 대화할 때

해인 동생: 아니, 아버지, 제가 우리 건우 저번에 엄마 성 따르는 거 어떡
나 했을 때는 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해인 아빠: 그거랑 이거랑 같냐?

(36)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상황이다. 이 경우 아버지와 아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높임 표현을 굳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다.

(37) 엄마와 딸이 집에서 대화할 때

해인: 무슨 일인지 돌리지 말고 그냥 말하세요.

해인 엄마: 뻔하지, 수철이 리조트 투자 받으면 니가 말린다. 그러니까 수철이한테 투자하지 말고 염상진이한테 해 줘라 그래야 회장님 보발 대발하길 거니까

해인: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37)은 어머니와 딸이 대화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어머니와 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친근감을 느낀다면 굳이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이지만, 위의 경우 딸이 어머니에게 심리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격식체 높임말인 ‘해요체’를 사용한다. 이처럼 (36)와 (37)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자녀는 부모님과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높임말인 ‘해요체’와 반말인 ‘해체’를 같이 사용할 수 있음을 학습자에게 지도할 수 있다.

2) 처부모와 사위 관계

(38) 장모와 사위가 처갓집에서 대화할 때

현우: 해인이가 아침부터 컨디션이 좀 안 좋았습니다. 들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해인 엄마: 그래서 지금 나더러 가라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현우: 죄송합니다.

(38)은 처갓집에서 대화하는 상황이다. 위에서 장모는 사위보다 나이가 더

많고 서로 친근감이 적은 상태라, 사위인 현우는 장모인 해인 엄마에게 격식체 높임말인 ‘합쇼체’를 사용하고, 장모인 해인 엄마는 현우에게 비격식체 반말인 ‘해체’를 사용하고 있다.

(39) 장인어른과 사위가 처갓집에서 대화할 때

해인 아빠: 근데 이왕 수빈이 만날 거면 난 내년 5월이 좋아.

현우: 수빈이가 누군가요?

해인 아빠: 누구긴 곧 태어날 우리 외손녀지 ‘빼어날 수’에 ‘빛날 빈’ 이름 괜찮지? 홍수빈

현우: 아, 백수빈이 아니고 홍수빈인가요?

해인 아빠: 왜? 엄마 성 붙이는 거 혹시 별로인가? 호주제도 폐지가 되었고 아빠 성만 따르는 거 난 굉장히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데.

(39)도 처갓집에서 대화하는 상황이다. 위에서 장인어른은 사위보다 나이가 더 많지만 서로 친근감을 가지고 있어서, 사위인 현우는 장인어른에게 비격식체 높임말인 ‘해요체’를 사용하고, 장인어른인 해인 아빠는 현우에게 비격식체 반말인 ‘해체’를 사용하고 있다.

3)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

(40)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가에서 대화할 때

현우 엄마: 저, 이거 별거는 아니고 약 안 치고 직접 키운 거니까 가서 먹어라. 아가, 암만 일이 좋아도 건강이 최고다. 가라.

해인: 감사합니다.

(40)는 친가에서 대화하는 상황이다. 위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나이가 더 많고 자주 보지 않아서 서로 내적 거리감이 있는 상태라, 며느리인 해인은 시어머니에게 격식체 높임말인 ‘합쇼체’를 사용하고, 시어머니인 현우 엄마는 며느리에게 격식체 낮춤말인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합쇼체, 해요체, 해체가 많이 사용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낮춤 표현인 해체를 사용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높임 표현인 합쇼체, 해요체를 사용한다. (36)의 경우 부모와 자식은 서로 비격식체 낮춤 표현인 해체를 사용하고, (37)의 경우 자식은 부모에게 비격식체 높임 표현인 해요체를 사용하는 한편, 부모는 자식에게 비격식체 낮춤 표현인 해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 높임법에서는 친밀성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기도, 부모는 자식에게 비격식체인 해체 혹은 격식체인 해라체를 사용한다. 이처럼 (36)와 (37)을 토대로 친부모와 친자식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해요체와 해체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8)과 (39)은 사위와 처부모 관계를 나타내는데 (38)에서 사위는 장모님과 친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모님에게 격식체 높임 표현인 합쇼체를 사용하고, (39)에서 장인어른과는 친밀성이 있는 편이라 비격식체 높임 표현인 합쇼체를 사용하고 있다. 즉 (38)과 (39)은 같은 위계의 관계이지만 친밀성에 따라 ‘해요체’와 ‘합쇼체’가 공존하여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번도 친엄마에게 ‘해요체’, ‘해체’를 사용하지만 친밀성이 좀 떨어진 시어머님에게는 ‘합쇼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의 상대높임법 사용법은 위계와 친밀성에 따라 정해진다고 학습자에게 지도할 수 있다.

베트남어에서는 가족사이라도 대화할 때 주어가 있어야하고 한국어에서 친밀성이 따라 높임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베트남어에서 자식이 부모님에게 대화할 때 반드시 높임표현인 ‘ạ’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37).(38).(39)의 대화는 비슷하지만 (37)은 (37-1)처럼 베트남어로 번역하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p>(37-1) Em trai của Haein: Không, thưa bố, lần trước con hỏi Geonwoo về việc lấy họ của mẹ, bố đã bảo con đừng nói những điều vô nghĩa như vậy.</p> <p>Bố của Haein: Điều đó cũng giống như thế này không?</p>
--

(37-1)은 ‘thưa’라는 높임 표현을 쓰고 주어인 ‘bố’(아빠) 와 ‘con’(자식)을 썼다. 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건우 저번

에 엄마 성 따르는 거 어떠냐 했을 때는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로 번역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이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친밀성이 떨어져 멀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37)~(40)에서 화자와 청자의 친밀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37)번처럼 부모님과 지식의 관계가 친할 때에는 서로 ‘해체’를 사용할 수 있고 (38)~(40)번도 같은 부모와 자식 관계지만 (37)번처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은 높임표현인 ‘합쇼체’나 ‘해요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차이를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5.2.2.2 형제-자매 관계

선정된 드라마 안에서는 형제-자매 관계 간에 대화가 많이 나타난다. 이 경우 형제-자매 관계 간에도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친밀도가 높아서, 나이 요인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는 친자매와 시가 또는 처가 형제 관계로 분석하였다.

1) 친자매 관계

(41) 누나와 동생 집에서 대화할 때
해인 동생: 왜 달려! 왜...뭐.. 야, 오지말고 거기서 말해
해인: 수절아
해인 동생: 왜?
해인: 피하지 마라. 또 되도 않게 피하다가 눈탱이 밤탱이 돼서 쳐올지 말고
해인: 백현우가 니 친구야? 동생이야? 뭐?

(41)은 친자매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위의 경우 자매가 서로 친근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이도 비슷하기 때문에, 격식체 낮춤말인 해라체와 비격식체 낮춤말인 해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예문과 같은

경우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형제-자매 관계이고 서로 해체, 해라체를 사용한다. 25) 옛날 한국어에서는 형제-자매 사이의 대화에는 나이가 절대적이라고 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비높임을 하고 아랫사람만 윗사람에게 높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서로 해체와 해라체로 비높임을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2) 시가 또는 처가 형제 관계

(42) 손위 시누이와 올케, 시아주버님과 제수씨 간에 대화할 때
 해인: 제가 좀 도울까요?
 백현우 누나: 아니야, 아니야
 백현우 형: 아니요. 하실 거 없으세요. 가서 쉬세요.
 백현우 누나: 근데 저기 올케, 올케라고 해도 되지? 적당한 호칭이 없어서...
 홍해인: 편한대로 하세요.

(42)은 해인이 남편의 형과 누나와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위의 경우 해인은 손위 시누이와 시아주버님 둘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비격식체 높임말인 ‘해요체’를 사용한다. 여기서 올케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시누이는 비격식체 낮춤말인 ‘해체’를 사용하지만, 제수씨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시아주버님은 비격식체 높임말인 ‘해요체’를 사용한다.

종합하면 (41)은 친자매관계인데 서로 친밀성이 높은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해체’만 사용하지만 (42)은 [시누이-올케/시아주버님-제수씨] 관계인데, 시누이는 올케에게 친근감을 느껴 ‘해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시아주버님은 제수씨와 친근하지 않아 상호간에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대화를 나눌 때 성별도 고려하기 때문에 같은 여자인 시누이는 ‘해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성별이 다른 시아주버님은 ‘해요체’를 사

25) 김명운(1996)에서는 옛날 한국어에서는 형제-자매 사이의 대화에는 나이가 관여적이라고 했다. 윗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비높임을 하고 아랫사람만 윗사람에게 높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윗사람과 아래동생 서로 해체와 해라체로 비높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용한다고 볼 수도 있다.

(42-1) Hacin: Em giúp anh nhé ạ?
Chị gái của Baek Hyun-woo: Không, không.
Hyunwoo Baek: Không. Em không có gì để làm. Đi nghỉ ngơi đi.
Chị gái của Baek Hyeon-woo: Nhưng nói em dâu, em dâu có được không? Chị không có một cái tên phù hợp...
Hong Hae-in: Hãy làm bất cứ điều gì chị cảm thấy thoải mái ạ .

베트남에서는 가족관계에서 친밀성보다 위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친해도 위계가 낮으면 반드시 주어와 높임표현인 ‘ạ’를 써야한다. 따라서 (42)번 대화는 베트남어로 하면 위와 같이 된다. 베트남어로 구성된 대화를 보면 해인의 모든 말에서 ‘ạ’를 붙여서 이야기한다. 백현우의 형이 한국어에서는 ‘해요체’를 쓰지만, 베트남어로 하면 높임표현 없이 대화한다.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위의 대화에서 어떤 사이에 ‘해체’를 쓰는지, 언제 ‘해요체’를 쓰는지 판단하기 힘들 수 있다고 본다.

5.2.2.3 사돈 관계

(43) 해인 가족과 현우 첫날에 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할 때
해인 아빠: 이거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철이 없습니다.
현우 아빠: 아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인 아빠: 알프스산 아니어도 되고요. 독일이나 호주 쪽도 괜찮습니다. 피지산도 좋습니다.
저의 정말 그런 거 안 가립니다.
해인 동생: 예, 그거라도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사돈 관계는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가장 높임 표현인 합쇼체 쓰거나 해요체를 쓸

수 있지만, 위의 예문에서는 처음 만나기 때문에 서로 합쇼체만 사용한다. 이와 같이 베트남에서도 사돈 관계가 있어서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베트남어에서 주어로 존중하거나 ‘ạ’를 사용하면 되지만 한국어에서는 ‘해요체’가 아닌 ‘합쇼체’를 사용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5.2.2.4 친구 관계

서로 나이가 비슷하고 친한 사이를 말한다. 드라마 중에서 나오는 친구 관계 간에 대화 장면이 많이 보인다. 그중에서 높임법의 사용은 큰 차이가 없다. 다음에는 친구 관계 중에서 상대높임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다.

(44) 백현우와 친구 이야기할 때

친구: 아니, 내가 공항 나간다니까, 어? 괜찮아? 야, 사지 멀쩡해? 보통 얻어맞으면 고막이 나가던데. 우리 의뢰인들 중에 고막 나가서 오시는 분들 꽤 되거든, 어? 내 말 들려?

현우: 그만해라

친구: 아휴, 괜찮네, 고생했다! 이리 와! 안아 줄게.

친구 관계에서는 대체로 해라체와 해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친구 관계에서는 사이가 친밀하기 때문에 서로 편하게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베트남어에서도 친구사이에 서로 반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에게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다.

5.2.2.5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중에서 바로 동료 관계이다. 앞에서 친구 관계와 연인 관계는 친밀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높임법의 사용이 가족처럼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렇지만 동료 관계는 친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동료 관계 간에 상대높임법의 사용 양상이 차이가 있다. 드라마 중에서 동료 관계 간에 나이가 있는 경우와 나이 차이가 없는 경우의 상하관계의 상대높임법의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나이 차이가 있는 상하관계

위에서 살펴본 (34)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나이 차이가 있으며 나이가 더 높고 직급이 더 높은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 '해체'를 쓰고 낮은 사람이 항상 '합쇼체'를 사용한다.

2) 나이 차이가 없는 상하관계

(45) 회사에서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은 상-하 관계

직원1: 아, 나 사장님 다이아 보고 놀랐어.

직원2: (나 비서): 자, 지금부터 공작새 하나를 발령합니다. 긴장들 하 자고.

직원3: 죄송한데 '공작새 하나'가 뭐예요?

직원2: (나비서) 그래 너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지. 아까 사장님 옷 어 뻤어?

직원3: 예쁘던데요?

3) 나이 차이가 없는 직장 내 입사동기

(46) 같은 직급인 동료 직원들이 대화할 때

직원1: 소문이 사실인가 봐요. 저 두 분 결혼한다고... 백 이사님이랑은 완전 끝난 거?

직원2: 다들 입 조심해요. 우리 다 비밀유지각서 썼잖아요. 특히 나비 서님....

직원3: 조심할 게 뭐 있어요. 이제 상사도 아닌데.

(45)에 등장인물들은 모두 직장 동료 간의 대화인데, 직원1과 직원2는 해체로 비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직원3은 해요체로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직원1과 직원2는 두 사람이 서로 친하고 같은 직급일 때라서 서로 비높임을 사용하지만, 직원3은 신입 직원이어서 다른 직원

보다 직급이 낮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하 관계로 초점해서 높임표현을 결정하게 된다.

(46)는 같은 등급 직원들의 대화이다. 등급이 비슷하더라도 친밀성의 영향을 받으니까 똑같은 등급의 동료 관계라도 해체 혹은 해요체를 사용하여 서로 높임 혹은 서로 비높임을 나타낸다. 만약에 동료 간에 나이 차이가 좀 있으면 한 쪽에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한 쪽에 해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어에서도 사적인 대화라면 친밀성보다 나이 차이가 날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즉 베트남인은 위의 상황에서 언제 ‘해요체’를 사용하고, 언제 ‘해체’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다.

4) 나이 차이가 있는 사회적 관계

위에서 제시된 대화들은 회사 내에서 하는 대화이지만 사회관계는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가 있다. 아래와 같이 세입자와 건물주의 관계는 이야기할 때에는, 서로 높임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건물주가 세입자보다 나이가 많으면 한쪽만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드라마에서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47) 백현우, 홍해인, 건물 주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 (건물 주인은 나이가 많음)

주인: 어? 11층 총각이네?

백현우: 네, 안녕하세요.

홍해인: 제가 이 사람 아내거든요

주인: 어, 아니 이사 들어올 때 그 집에 혼자 산다 하지 않았어? 그새 결혼을 한거야?

백현우: 네

주인: 신혼부부구나, 신혼부부, 한참 좋을 때네, 좋을 때야.

홍해인: 좋아요.

예문을 보면 대화할 때 홍해인과 백현우는 건물주보다 나이가 어려서 건물주에게 높임 표현인 해요체를 쓰지만, 건물주는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해체만 쓴다. 여기서 건물주는 ‘11층 총각이네요’ 써도 되지만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편한 해체를 사용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적 관계 예문에서는 (37)과 (39),(43)만 가장 높은 표현인 합쇼체를 사용하고 나머지 예문들은 다 해요체나 해체를 많이 사용한다.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비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은 보통이다. 비높임 표현 중에서는 해체가 많이 나타나고 친한 사이 간에는 해라체도 많이 나타난다. 형제-자매 관계와 친구 관계 간의 상대높임법의 사용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예문 중에서 친한 형제-자매 관계와 친구 관계 간에 상대높임법의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면 높임 표현의 사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서로 편하게 비높임 표현 해체와 해라체를 사용한다. 그리고 친밀도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관계 간에 높임 표현의 사용은 다를 수 있다. 동료 관계 간에 상대높임법의 사용 양상은 나이차와 친밀도의 영향을 받는다. 동료 관계 간에 높임 표현 해체/해요체의 사용 빈도가 가장 많다. 부모와 자식 관계의 간에도 친밀성에 따라 해요체와 해체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즉 한국어 상대높임법에서 사적 관계는 위계와 친밀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요소를 통해서 잘 활용해야 대화가 자연스럽다. 그리고 특히 사돈 관계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높여줘야 한다.

5.2.2.3 상황

한국어 상대높임법에서 상황에 따라서 높임 표현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동일한 인물이지만 상황이 다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드라마에 있는 몇 가지 대화를 가져와서 분석하였다. 상황에서 크게 부부관계와 지인관계의 공식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의 높임 표현을 분석하였다.

1) 부부 관계

부부 관계는 아주 친밀성이 높은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 관계는 위에 있는 사적인 대화라면 서로 ‘해제’와 ‘해요체’를 쓸 수 있지만 얼마나 친밀성이 높아도 공적 상황에 있는지 사적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높임 표현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드라마를 통해 예시를 제시하였다.

1.1) 공적 상황

회사 관계 중에서 바로 상사-부하 직원 관계이다. 드라마 중에서 상사-부하 직원 관계 간에 상대높임법의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48) 법무이사인 백현우와 사장인 홍해인이 회사에서 회의할 때
홍해인: 백현우 이사님, 퇴점 대상 점포들 내보내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백현우: 일단 해당 점포들 중 여러 곳이 시설비 투자를 5억 정도 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홍해인: 명도 소송해요.
백현우: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형 유통 업체가 입점 업체에 갑질
하는 관행을 바로 잡으려고 법률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직장에서 상대 높임 표현은 대화 참여자의 직급, 나이, 친밀도에 따라 사용이 다를 수 있다. (48)와 같은 경우는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해요체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대화할 때는 해요체를 사용하고, 보고할 때는 합쇼체로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첫 번째 문장은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해요체 사용하고, 하급자는 마지막에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라고 합쇼체를 사용하여 대화 중에서 직장 직급의 차이가 제일 명확하게 나타난다.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 가장 높임 표현인 합쇼체를 사용한다. 베트남어도 이와 비슷하다. 직급이 높지만 나이가 똑같으면 서로 높임표현을 사용하고 나이가 더 어리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높임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해요체’ 뿐만 아니라 ‘합쇼체’도 있기 때문에 둘의 표현이 언제 쓰는

지 잘 구분해야한다.

1.2) 사적 상황

선정된 한국 드라마를 분석해 보면 주로 친족 관계, 친구 관계, 연인 관계, 회사 관계로 나눌 수 있고 친소 관계는 부부관계, 형제-자매 관계 관계가 있다. 여기서 나오는 부부 관계는 주로 젊은 부부이다.

(49) 남편인 백현우와 아내인 홍해인이 회사에서 사적으로 대화할 때
홍해인: 우리 사이 안 좋다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싶어 안달이 난 거야?
백현우: 우리 관계와 일은 별개야
홍해인: 남들한테 참 따뜻하고 인정 많고 섬세하기도 한 백현우씨 무슨 영웅이라도 되고싶니? 실석 없는 짓 그만하고 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잘해 (라)
백현우: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너가?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긴 한가?

위의 예문과 같은 경우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 해체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부부가 다 해체, 해라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드라마의 경우처럼 젊은 나이 부부는 서로 편하게 해체를 사용한다. (48)과 (49)은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지만 (48)과 같은 공적인 회사 상황이면 부부의 사이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이기 때문에 직급을 고려하여 대화해야 하고 (49)같은 사적인 상황이면 직급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성으로 대화하게 한다. 그래서 한국어 높임법은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어에서도 부부관계이지만, 공식적인 상황이나 사적인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진다.

2) 지인 관계

지인 관계에 나이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지위가 다른 경우에는 높임법은 다르게 변한다. 드라마를 통해 같은 인물에 나이 차이가 있지만 사회 위치가 다르면 공적 장소에 있는지 사적 장소에 있는지에 따라서 높임 표현을 결정하게 된다.

2.1) 공적 상황

(50)

그레이스: 사모님, 오늘 스파 마음에 드셨습니까?

천다혜: 네, 좋았습니다.

예문에서 그레이스는 천다혜와 사적으로 친밀한 사이이고 나이가 더 많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한 가게 주인과 손님으로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합쇼체를 사용한다.

2.2) 사적 상황

(51)

그레이스: 야, 이거 봐, 블랙박스에 이런 거 다 찍혔어.

천다혜: 아니, 왜...

그레이스: 그래, 이년아 너 진짜로 큰일 날 뻔했다고

천다혜: 왜 이렇게 똥똥하게 찍혔어, 나..

그레이스: 그게 중요하니?

(50)와 다르게, (51)에서처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나이 차이가 있어도 서로 존중해줄 필요가 없는 관계이면서, 한편으로는 친근하기 때문에 비격식체 낮춤말인 해체를 사용한다. 이처럼 종합하여 (49)와 (50)을 살펴보면 나이 차이가 있어도 사적으로 친밀성이 높은 관계라면, 사적 상황에서는 상호간

에 비격식체 낮춤말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라도 공적 상황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상호간에 격식체 높임말인 ‘합쇼체’를 사용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다.

위의 (48),(49),(50),(51)를 살펴보면 한국어 상대높임법에서 나이, 지위, 친밀성 모두 중요하지만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인물이지만 이야기하는 상황이 다르면 높일지, 안 높일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드라마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적인 관계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과, 상위계층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비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보통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상황에서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반면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 친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자식 관계, 형제-자매 관계 간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비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높임 표현을 사용할 때 해요체가 합쇼체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합쇼체는 상사-부하 직원 관계 중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많이 사용한다.

이상 <눈물의 여왕>에 나타난 인물 관계에 따른 상대높임법의 사용양상을 살펴보았다. 드라마 중에서 사용된 상대 높임 표현의 빈도수에 따르면 ‘해요체’-‘해체’-‘합쇼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라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격식체일수록 또 높임등급이 높을수록 사용빈도수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격식체 표현인 ‘해체’가 ‘해라체’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다. ‘해라체’는 쓰면 상대방의 기분에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해요체’는 ‘합쇼체’보다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예문들을 살펴본 후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해요체’는 대체로 ‘합쇼체’가 나타나는 장면에서 많이 사용된다. 오늘날 수직적인 사회제도가 서서히 무너지고 민주적인 수평적 사회 제도가 자리를 잡음에 따라, ‘해라체’, ‘합쇼체’의 2원적 체계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격식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서는 ‘해체’와 ‘해요체’를 대신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화자와 청자 상호간에 딱딱한 격식을 갖추길 원하지 않는 ‘연인’, ‘직장 동료’, ‘부모-자식’ 관계 등 여러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주로 해요체를 사용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수평적 사회 제도에 따른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해체’는 대체로 다양한 관계에서 매우 폭 넓게 사용됨을 알 수 있는데 주로 ‘해라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신 많이 사용된다. 주로 부부 관계, 형제-자매 관계, 친구 관계, 동료 관계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해체’는 일반적으로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편하게 대하는 대화 상황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한국어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도 많이 사용하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혹은 동생이 오빠/형, 언니/누나에게 ‘반말체’인 ‘해체’를 사용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마트에 가다가 자식이 부모님에게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라고 하는 모습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는 예전 유교 문화인 삼강오륜 등 가정 내에서의 위계질서를 강조되었던 때와 달리,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혈연관계에서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것보다, 상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서로 개개인을 존중하고, 친근감을 가지고 가까이 하려는 양상이 예전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합쇼체’는 친족관계, 사회적 신분 내지 계급적 관계, 연령관계에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난다. 고영근·구본관(2018)에서 "형태상 ‘-(으)ㅂ-’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ㅂ’이 주로 합쇼체의 표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격식성을 가지고 있고 아주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주로 ‘상사-부하’, ‘직원-손님’ 등의 관계에서 사용되고, 예의를 차리고 싶거나 친밀감이 부족한 관계에서도 사용된다. 한편 합쇼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연설, 면접, 발표 등 화자가 여러 청중 앞에서 이야기해야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해라체’는 서정수(1980)에서 "상하 관계가 명확한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형태라는 격식체로 보았다. 이처럼 친족, 계급 및 신분, 연령관계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난다." 거의 ‘해체’와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우선 ‘해라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격식체인 ‘해체’를 사용하면 친근감이라도 줄 수 있는

반면, 격식체인 ‘해라체’는 상대에게 명령하는 듯한 공격적인 느낌을 주는 탓에 친한 사이라도 해라체를 남발하면 감정이 악화되기 쉽다.

그리고 드라마 내용을 통한 학습과정에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공적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 지위를 고려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직급에 따라 높임법을 사용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직장에서도 나이에 따라 높임법을 적용한다. 또한 베트남어에서는 주어를 생략할 수 없으나, 한국어에서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어서 한국인과 대화할 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적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친부모 혹은 시부모/처부모에게 사용하는 높임법이 다를 수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항상 높이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친형제 간에 서로 반말을 사용할 수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항상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부부 관계나 지인관계에서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지는데, 베트남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부 관계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항상 존댓말을 해야 하고, 지인 관계에서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대를 해야 한다.

상대높임법의 양상은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다양한 관계와 상황에 따라 나타났다. 혈연관계에서는 친밀도에 따라 상하관계의 구분이 모호해져,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 ‘해체’를 사용하였으나, 사적 관계에서는 동위의 화자와 청자가 ‘해요체’를 사용하며, 나이에 따라 상하관계가 결정될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해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화자와 청자 모두 ‘해요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친밀한 사적 관계에서 존중의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해요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라체’는 오직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사용되는 특성이 있다. ‘합쇼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드라마는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에 따른 상대높임법의 사용 양상을 적절히 반영하며, 실제 언어의 측면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언어를 제공한다. 드라마 속 인물들의 연령대가 20대부터 50대에 이르고, 중급 학습자들이 주로 20대 초반에서 중반이라는 점에서, 드라마의 관계와

발화 상황은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높임법 교육에 있어 드라마의 표현들을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다.

5.3 드라마를 활용한 상대높임법 교수·학습 모형

위에서 다루었던 교수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교수·학습 방안을 구성하였다. 첫째, 수업에서 상대높임법을 결정하는 사회관계망 요소인 부모-자식, 형제-자매, 상하, 동료, 친구 등의 관계를 ‘눈물의 여왕’ 드라마 장면을 활용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한다. 둘째, 가족드라마이자 사회드라마인 ‘눈물의 여왕’을 통해 상대높임법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셋째, 학습자들이 ‘눈물의 여왕’ 드라마에서 본 장면을 바탕으로 역할극을 진행하거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실제 상황에서 상대높임법을 적용해 보며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상대높임법을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언어 교육에서 특히 문법 교육에서는 교수 항목의 순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때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한국어 교육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에는 필수적으로 배워라 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기술하고 가르쳐야 한다. 즉 배워야 하는 것과 배우지 않아도 되는 항목의 순서 배열과 불필요한 항목의 제외함이 필요하다.”(박영순, 2004)

앞서 상대높임법 교육 내용 주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어 모어화자의 실생활에서 줄어들고 있는 언어 사용은 교육 내용에서 제외해도 좋을 것이다.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육은 실제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모어 화자의 언어생활에 밀착된 언어표현부터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2.3에서 제시한 교수-학습의 모형과 학습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눈물의 여왕>을 활용한 상대높임법 수업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상대 높임

표현은 ‘합쇼체’와 ‘해요체’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안은 베트남 학습자들은 가장 어려워하는 두 표현으로 교수 학습과 지도안을 제시한다.

학습 목표	-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습니다’, ‘아/어요’, ‘해’, ‘해라’를 사용할 수 있다.
도입	- 드라마 자료를 통해 상대높임법을 노출 및 동기화한다. 학습자의 흥미 유발하기 위해 포스터를 보여주고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시	- ‘습니다’와, ‘아/어요’, ‘해’, ‘해라’의 형태, 의미를 복습하는 정도로만 제시하고, 사회언어학적인 이해를 강조하려 제시한다. - ‘습니다’, ‘아/어요’, ‘해’, ‘해라’ 있는 드라마의 대화를 보여주고 동영상을 통해 듣고 교사가 읽고 학습자들은 따라 읽는다. - 드라마 대화에서 어휘와 문법이 있으면 판서를 통해 설명한다. - 학습자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과 답. - 베트남어라면 제시한 대화에서 높임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보고 한국어와 비교.
연습	-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습니다’, ‘아/어/해요’, ‘해’, ‘해라’의 사회적 요인에 대해 인지시킨다. 드라마 장면인 동영상을 보여주고 대화 반복 연습을 시킨다.
활용	- 드라마 인물의 역할을 가지면서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습니다’, ‘아/어/해요’, ‘해’, ‘해라’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한다.
마무 리	- 수업 정리 - 과제 수행

[표 6]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수-학습의 수업 모형

도입단계에서는 수업하기 전에 교사가 먼저 학습자들에게 지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시키고 다음으로 이번 수업 내용을 도입한다. 도입 부분은 교사가 먼저 이번 수업에서 활용한 드라마의 포스터를 학습자들에게 보여주고 이 드라마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다음에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

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 이 드라마 중에서 주인공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장 인물들 간에 무슨 관계있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은 드라마를 시청할 때 집중력이 잡을 수 있게 한다. 드라마의 대화 상황을 편집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영상은 대화 장면만 짧게 편집하여 사용하며 ‘습니다’, ‘아/어/해요’, ‘해’, ‘해라’가 실현되는 장면이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관심도를 관찰하고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유도한다.

제시단계에서는 교사는 학습자들이 드라마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자료 중에서 어려운 단어를 설명한다. 드라마 내용을 시청한 후에 교사가 도입 단계에서 언급한 질문을 다시 물어보고 학습자들이 같이 토론도 할 수 있다. 다음에는 교사가 선정한 드라마 대본을 학습자들에게 주고 드라마의 배경하고 인물관계를 간단히 설명한다. 그 후에 대본에서 나오는 관계들에서 상대 높임 표현 ‘합쇼체’, ‘해요체’, ‘해’, ‘해라’의 사용 양상을 제시하고 자세히 설명한다. 그 다음에 영상을 볼 때 상대 높임 표현의 사용 양상을 집중해서 본다. 도입한 드라마의 장면에 대해 유도 질문을 함으로 대화 참여자의 관계를 알게 하고 난 후, 제시 단계에서는 ‘습니다’, ‘아/어/해요’, ‘해’, ‘해라’ 장면의 대화문으로 설명하여 표현을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해서 왜 ‘습니다’/‘해요’/‘해’/‘해라’를 쓰는지 설명한다. 같은 자식이지만 친밀도에 따라 높임 표현은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친다. 친한 사이인 엄마와 딸은 딸이 엄마에게 ‘해요체’ 사용하지만, 사위는 장모에게 ‘합쇼체’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사위는 장모와의 관계는 친밀도가 딸보다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빠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누리의 대화인 장면도 같이 제시한다.. 등등.

〈드라마 장면 대화 1〉

해인: 무슨 일인지 돌리지 말고 그냥 말하세요.

해인 엄마: 너 윤은성한데 수철이에 대해서 뭐라고 한거니? 뭐라고 가운데서 이간질을 했길래 윤 대표가 요리 빼고 조리 빼는 거냐고

〈 드라마 장면 대화 2〉

현우: 해인이가 아침부터 컨디션이 좀 안 좋았습니다. 들어가 좀 쉬어

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해인 엄마: 그래서 지금 나더러 가라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데?

현우: 죄송합니다.

학습자들에게 드라마 영상을 보여 주고 난 후 학습자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한다. 질문과 답을 한 후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관계는 둘의 대화에서 둘 다 자식이지만 친밀도에 따라 높임 표현은 다르게 사용하는 것에 강조해야 한다.

< 드라마 장면 대화 3>

현우 엄마: 저, 이거 별거는 아니고 약 안 치고 직접 키운 거니까 가서 먹어라. 아가, 암만 일이 좋아도 건강이 최고다. 가라.

해인: 감사합니다.

< 드라마 장면 대화 4>

해인 아빠: 근데 이왕 수빈이 만날 거면 난 내년 5월이 좋아.

현우: 수빈이가 누군가요?

해인 아빠: 누구긴 곧 태어날 우리 외손녀지 ‘빠어날 수’에 ‘빛날 빈’ 이름 괜찮지? 홍수빈

현우: 아, 백수빈이 아니고 홍수빈인가요?

그리고 한국어 상대높임법은 상황에 따라서 높임 표현은 달라지 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지만 상황도 같이 제시해서 설명해야 한다.

< 드라마 장면 대화 5>

홍해인: 백현우 이사님, 퇴점 대상 점포들 내보내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 나요?

백현우: 일단 해당 점포들 중 여러 곳이 시설비 투자를 5억 정도 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홍해인: 명도 소송해요.

백현우: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형 유통 업체가 입점 업체에 갑질하는 관행을 바로 잡으려고 법률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 드라마 장면 대화 6 >

홍해인: 그렇게 공사 구분이 확실해서 내가 삼진 아웃 시키라고 베틀는 매장 점주한테 위반 사항 미리 귀뜸해 주고 살아남게 도와주고 그랬구나?

백현우: 그 점주님은 우리 백화점 오픈 때부터 같이 하신 분이야. 지금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홍해인: 남들한테 참 따뜻하고 인정 많고 섬세하기도 한 백현우씨 무슨 영웅이라도 되고싶니? 실석 없는 짓 그만하고 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나 잘해 (라)

백현우: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너가?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긴 한가?

위의 <드라마 장면> 같이 인물이지만 공식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를 제시한다.

연습 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제시한다. 따라서 통제적 연습을 통해 학습 목표에 익숙하도록 할 수 있게 한다. 연습 단계에서 주로 학습자들이 읽기-말하기-쓰기 중심 연습을 통해 상대높임법의 사용 방법에 대해 익숙하도록 하고 교사가 학습자들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다. 드라마 속에 있는 대화를 반복 연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시킨다.

(41) 누나와 동생 집에서 대화할 때

해인 동생: 왜 달려! 왜...뭐.. 야, 오지말고 거기서 말해

해인: 수철아

해인 동생: 왜?

해인: 피하지 마라. 또 되도 않게 피하다가 눈탱이 밤탱이 돼서 쳐울지 말

고

해인 동생: 아, 진짜 미쳤냐! 왜 때리냐고 왜?

해인: 백현우가 니 친구야? 동생이야? 뭐?

(42) 손위 시누이와 올케, 시아주버님과 제수씨 간에 대화할 때

해인: 제가 좀 도울까요?

백현우 누나: 아니야, 아니야

백현우 형: 아니요. 하실 거 없으세요. 가서 쉬세요.

백현우 누나: 근데 저기 올케, 올케라고 해도 되지? 적당한 호칭이 없어서...

홍해인: 편한대로 하세요.

활용단계에서는 주로 역할극 활동을 통한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상대 높임법의 사용 연습을 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역할극을 통한 상대높임법을 학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3명 정도로 그룹 활동하여 각자 역할 분담을 의사소통적으로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해 본다. 드라마 장면을 보여주고 남은 대사를 주고 그룹마다 역할극으로 대화를 연장해서 이뤄지는 대화를 완성한다.

예를 들면 학습자는 홍해인이다. 회사에서 발표하기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하기

회사에서 부모님과 대화하기

집에서 이웃 사의의 대화

회사에서 처음 만난 지인과 대화

아웃들의 처음에 만난 대화

의사와 대화

연습을 통해 상대높임법에 대한 형태와 인물관계를 비롯한 의미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활용 단계에서는 연습을 통해 강조된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실제 일상생활과 비슷한 드라

마의 장면을 선택해야 학습자들은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면을 선택할 때 조심해야 한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서 상대높임법의 사용을 적용하면서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은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한 상대높임법의 형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확인해 본다.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와 어떤 장소, 누구에게, 어떤 발화 상황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해를 시킨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배운 지식을 얼마나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교사가 학습자들이 잘못하는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보충 설명해 준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 다시 지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과제를 부여한다.

5.4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수업 지도안

5.4.1 한국어 상대높임법 수업 설계 방향

위의 수업 모형에 따라서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교육 실제 수업 교안은 도입 단계, 제시 단계, 연습 단계, 활용 단계와 마무리 단계로 제시한다. 관계에 따른 높임법 사용 수업 계획안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상대높임법에는 다른 형태의 경로로 다양한 형태의 경로로 이 특성을 더해 좋은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를 한국어 높임법의 유연 교육을 진행한다. 드라마가 둘 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방영되었고,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상대높임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5.2에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수업 교안을 제시한다.

교안 작성에서는 하나의 드라마를 선정하여 대본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상대높임법을 의사소통식과 시청각 교수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제시되었는지 살펴 본 후 3차시 분량으로 교안을 작성해 보았다. 교안을 작성할 때 주의 할 점은 목표를 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되 중요하게 강조해야 하는 부


분에서는 특수한 표시를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하며 실제적이며 쉬운 표현을 사용하되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주의하여 드라마를 이용한 교안을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교안은 초급 수준에서 상대높임법의 표현들을 배웠다고 가정하고, 중급 단계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상황을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다음은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드라마 자료를 활용한 상대높임법 수업 교안 작성에 대한 교안이다. 수업은 한국어 상대높임법 개념 및 특징을 복습하고 드라마 소개, 한국어 상대높임법 ‘해요’, ‘해’와 ‘해라’의 사용과 한국어 상대높임법 ‘합니다’, ‘해요’의 사용으로 3차시 수업을 구성되며 각 1차시는 50분 동안 진행된다.

5.4.1.1 1차시

본 연구에서는 중급 수준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교안을 설계하기 때문에 초급때부터 한국어 상대높임법 ‘합니다’, ‘해요’, ‘해’, ‘해라’를 기본 문법으로 배운 학습자들이다. 그래서 1차시에서는 다시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특징 및 체계를 복습하고 수업에 할 드라마를 소개한다.

단계	내용	시간 (분)
도입	-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개념과 특징 - “눈물의 여왕” 드라마를 소개	5분
제시	- 상대높임법 체계를 제시하고 복습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해요’- 어제 공부했어요 ‘해’- 빨래해 ‘해라’- 많이 공부해사 - 드라마 포스터를 통해 드라마를 소개	20분

26) tvN “눈물의 여왕” 드라마의 포스터

	 <p>[그림 14] ‘눈물의 여왕’ 드라마의 포스터²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마 속에 있는 인물들을 제시하고 관계 설명 - 드라마에서 각 체계가 나오는 부분은 보여주고 상대높임법의 상황과 맥락을 설명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마에 있는 상대높임법의 체계를 사용해서 대본 문장 완성 - 문장을 완성한 후 동영상으로 답을 확인 	10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마 인물로 위에 완성한 문장을 연장해서 대화 	10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의 질문과 답 - 2차시에 학습할 내용 예고 및 인사 	5분

[표 7]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1차시 교안

5.4.1.2 2차시

2차시에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해’와 ‘해라’를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이다.

단계	내용	시간 (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에 배운 ‘해요’ ‘해’, ‘해라’의 체계 연습 - 드라마에 속하는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소개 	5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에 속하는 ‘해요’, ‘해’, ‘해라’ 장면을 제시 및 설명 예) 가족관계: 부부, 부모님과 자녀, 형제자매 - 공적관계와 사적관계로 나누는 사회관계에 속하는 관계의 제시 및 설명 예) 상하관계, 동료관계, 친구관계 - 드라마에서 해당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가 나오는 부분을 보여주고 ‘해요’, ‘해’, ‘해라’의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차이의 비교 - 드라마 속에 있는 대화를 통해 베트남어와 비교 	20분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마 장면을 통해 문장을 완성 - 드라마 대화를 통해 알맞은 체계를 사용해서 대화 만들어서 반복 연습 - 교사가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 	10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 활동: 학생 두명씩 한 그룹으로 나뉘서 드라마 인물의 관계를 정해주고 상대높임법 체계를 사용해서 대화(역할극) 	10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의 질문과 답 - 3차시에 학습할 내용 예고 및 인사 	5분

[표 8]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2차시 교안

5.4.1.3 3차시

3차시에서는 학습자들은 가장 헷갈리는 ‘합니다’와 ‘해요’에 대한 교안을 설계한다. 실제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 관계에 따라 ‘합니다’와 ‘해요’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의 목표이다.

단계	내용	시간 (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에 배운 ‘합니다’와 ‘해요’의 체계 연습 - 드라마에 속하는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소개 	5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에 속하는 ‘합니다’와 ‘해요’ 장면을 제시 및 설명 예) 가족관계: 부부, 부모님과 자녀, 형제자매 - 공적관계와 사적관계로 나누는 사회관계에 속하는 관계의 제시 및 설명 예) 상하관계, 동료관계, 친구관계 - 드라마에서 해당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가 나오는 부분을 보여주고 ‘합니다’와 ‘해요’의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차이를 비교 - 드라마 속에 있는 대화를 통해 베트남어와 비교 	20분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마 장면을 통해 문장을 완성 - 드라마 대화를 통해 알맞은 체계를 사용해서 대화 만들어서 반복 연습 - 교사가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 	10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 활동: 학생 두명씩 한 그룹으로 나눠서 드라마 인물의 관계를 정해주고 상대높임법 체계를 사용해서 대화(역할극) 	10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의 질문과 답 - 3차시에 학습할 내용 예고 및 인사 	5분

[표 9]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3차시 교안

5.4.2 드라마를 활용한 상대높임법 지도안

수업은 3차시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안 3부로 작성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예시로 3차시에서 사용하는 교안을 작성하였다.

교재 / 단원	한국어 상대높임법이 어려워요.	학습자 수준	4급
수업 목표	'합니다'와 '해요'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업 내용	드라마 장면의 대화를 활용해서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반복 연습하도록 한다.		
담당 교사	응엔티응옥후엔	학습자 인원	10
수업 일시	2024.12	수업 시간	50분
강의	어학당	보조자료	〈눈물의 여왕〉

실			드라마 대본 〈눈물의 여왕〉 동영상		
단 계	교수-학습 활동		소 요 시 간	보 조 자 료	유 의 사 향
도 입	<p>- 도입부에 교사가 학생에게 가벼운 질문들을 통해 수업을 시작한다.</p> <p>- 1차시에서 학습했던 ‘합니다’, ‘해요’에 대해 언급한다.</p> <p>T: 아까 우리는 ‘합니다’, ‘해요’에 대해 배웠어요. 이번 수업에서는 드라마를 통해 많은 장면을 보고 공부해봐요.</p> <p>T: ‘합니다’는 주로 언제 사용할까요?</p> <p>S1: 보고하거나 발표할 때 주로 사용해요. 나보다 높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p> <p>S2: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해요.</p> <p>T: 맞아요. 그럼 ‘해요’는 언제 사용해요?</p> <p>S1: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친한 사람에게 사용해요.</p> <p>T: 맞아요. ‘눈물의 여왕’에는 어떤 인간관계가 있을까요?</p> <p>S: 가족관계, 사회관계가 있어요.</p> <p>- 드라마 장면에 있는 관계를 소개</p>	5 분			

	예)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사돈관계, 상하관계.		
제시	<p>- 교사가 학생에게 편집한 드라마 동영상을 보여준 후 함께 이야기한다.</p> <p>T: 첫 번째 동영상을 같이 볼게요.</p> <div data-bbox="442 457 999 853" data-label="Image"> </div> <p>[그림 15] 장인어른과 사위의 집에서의 대화</p> <p>[장면 1: 장인어른-사위]</p> <p>해인 아빠: 근데 이왕 수빈이 만날 거면 난 내년 5월이 좋아.</p> <p>현우: 수빈이가 누군가요?</p> <p>해인 아빠: 누구긴 곧 태어날 우리 외손녀지 ‘빠어날 수’에 ‘빛날 빈’ 이름 괜찮지? 홍수빈</p> <p>현우: 아, 백수빈이 아니고 홍수빈인가요?</p> <p>T: 지금 여기가 어디일까요?</p> <p>S: 집이에요</p> <p>T: 맞아요. 백현우는 누구와 이야기 하고 있어요?</p> <p>S: 해인의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어요.</p> <p>T: 맞아요. 한국에서는 호칭으로 장인어른이라고 불러</p>	15 분	동 영 상

<p>요. 백현우와 장인어른은 무슨 표현으로 이야기했어요?</p> <p>S: 백현우는 ‘해요’를 사용하고 장인어른은 ‘해’를 사용했어요.</p> <p>T: 맞아요. 그럼 회사에서 백현우와 장인어른은 회의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었나요?</p> <p>예)</p> <p>[백현우: 그전에 검토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해 왔다.</p> <p>장인어른: 우리 쿤즈 장학생 출신이면 믿어도 될 것 같다.]</p> <p>T: 그럼 여기에서 말을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p> <p>S: ‘왔습니다’로 고쳐야할 것 같아요.</p> <p>T: 왜요?</p> <p>S: 지금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부회장과 이사의 대화예요.</p> <p>T: 맞아요. 지금 백현우는 회사에서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있어서 ‘합니다’를 사용해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해요’와 ‘합니다’를 다르게 사용하죠?</p> <p>- 많은 관계를 제시하고 설명</p> <p>[장면 2:아버지와 아들]</p> <p>아들 : 아니, 아버지, 제가 우리 건우 저번에 엄마 성 따르는 거 어떠냐 했을 때는 ‘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하시더니</p> <p>아</p> <p>버지: 그거랑 이거랑 같냐.</p>			
--	--	--	--



[그림 16]: 시어머님과 며느리의 집에서의 대화]

[장면 3: 시어머님과 며느리]

시어머님: 저, 이거 별거는 아니고 약 안 치고 직접 키운 거니까 가서 먹어라.

아가, 암만 일이 좋아도 건강이 최고다. 가라.

며느리: 감사합니다.

[장면 4: 누나와 동생]

해인 동생: 왜 따려! 오지 말고 거기서 말해

해인: 수철아

해인 동생: 왜?

해인: 피하지 마라. 백현우가 니 친구야? 동생이야? 뭐?

[장면 5: 손위 시누이와 올케, 시아주버님과 제수씨]

해인: 제가 좀 도울까요?

백현우 누나: 아니야, 아니야

백현우 형: 아니요. 하실 거 없으세요. 가서 쉬세요.

	<p>백현우 누나: 근데 저기 올케, 올케라고 해도 되지? 적당한 호칭이 없어서...</p> <p>홍해인: 편한대로 하세요.</p> <p>[장면 6: 회사 대표- 법무팀 이사]</p> <p>홍해인(대표): 백현우 이사님, 퇴점 대상 점포들 내보내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p> <p>백현우(이사): 일단 해당 점포들 중 여러 곳이 시설비 투자를 5억 정도 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p> <p>홍해인: 명도 소송해요.</p> <p>백현우: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형 유통 업체가 입점 업체에 갑질하는 관행을 바로 잡으려고 법률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p> <p>T: 그럼 이제 우리는 ‘합니다’와 ‘해요’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정리해볼까요? ‘합니다’는 사회관계에서 보고하거나 발표할 때 사용하고, 가족관계에서는 친밀도가 서로 멀게 느껴질 때 사용해요. 그리고 ‘해요’는 사회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고, 같은 직급 동료에게 서로 친하면 ‘해요’를 사용해요. 가족관계에서는 자식이 부모, 형제들에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연습해볼까요?</p>			
연습	<p>- ‘합니다’와 ‘해요’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습지를 나눠주고 연습하게 한다.</p> <p>- 학습지 내용</p> <p>1. 상황 연습</p> <p>‘합니다’와 ‘해요’가 쓰일 수 있는 상황들을 골라보세요.</p>	20분	짝 활 동 연 습	

<p>a) 회사에서 백현우와 홍해인</p> <p>b) 집에서 백현우와 홍해인</p> <p>c) 회사에서 백현우와 홍해인의 동생</p> <p>d) 집에서 백현우와 홍해인의 엄마</p> <p>e) 집에서 홍해인과 엄마</p> <p>2. 대화 연습</p> <p>- 대화 완성을 반복하여 작성하게 한다. 그 후 정답을 제시하고 내용을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다.</p> <p>T: 그럼 지금 우리는 동영상 4개를 볼 거예요. 그런데 보기 전에 이 대화를 완성해보세요.</p> <p>- 회사에서 대화:</p> <p>(1) 홍해인: 백현우 이사님, 퇴점 대상 점포들 내보내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p> <p>백현우: 일단 해당 점포들 중 여러 곳이 시설비 투자를 5억 정도 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u>상황이다</u>.</p> <p>1. 상황이에요.</p> <p>2. 상황입니다.</p> <p>3. 상황이야.</p> <p>T: 답을 골라보세요.</p> <p>S1: 1번이에요.</p> <p>S2: 2번이에요.</p> <p>T: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회사 업무에 관한 내용이지만 보고하기 보다는 자기 의견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p> <p>(2) 홍해인: 소송해요.</p> <p>백현우: 승소 가능성이 <u>낮다</u>.</p> <p>1. 낮습니다.</p> <p>2. 낮아요.</p>		문제를 풀린 후에 드라마를 보면서 답을 확인하기	
---	--	----------------------------	--

<p>3. 낮아.</p> <p>T: 답을 골려보세요.</p> <p>S: 1번이에요.</p> <p>T: 맞아요. 백현우는 지금 자기 의견이 아니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서 ‘합니다’를 써요.</p> <p>- 집에서 대화</p> <p>(3) 엄마: 많이 아팠니?</p> <p>홍해인: 아플 때는 아프고 안 아플 때는 안 <u>아프다</u>.</p> <p>1. 안 아파.</p> <p>2. 안 아파요.</p> <p>3. 안 아픙니다.</p> <p>T: 답을 골라보세요.</p> <p>S: 1번이에요.</p> <p>S2: 2번이에요.</p> <p>T: 한국에서 부모와 자식간에는 ‘해요’와 ‘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둘 다 사용가능한데 더 친근감을 느끼면 ‘안 아파’를 사용한다.</p> <p>(4) 시엄마: 이거 별거는 아니고 약 안 치고 직접 키운 거니까 가서 먹어라.</p> <p>홍해인: <u>감사하다</u>.</p> <p>1. 감사해요.</p> <p>2. 감사해.</p> <p>3. 감사합니다.</p> <p>T: 답을 골라보세요.</p> <p>S: 3번이에요.</p> <p>T: 맞아요. 시어머니와 아직 거리가 있어서 ‘합니다’를 사용하고 있어요.</p> <p>지금까지의 대화가 나타난 동영상과 함께 볼게요.(동영상에서 답을 확인한다.)</p>			
--	--	--	--

활 용	<p>- 동영상과 보고 상황을 파악해서 높임 표현을 활용한 후 실제 일상생활 대화를 완성한다.</p> <p>(5) 직원1: 지금부터 ‘공작새 하나’를 발령합니다.</p> <p>직원2: 죄송한데 ‘공작새 하나’가 뭐예요?</p> <p>직원3: 그래 너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지. 아까 사장님 옷 어땠어?</p> <p>직원1: 예쁘던데요?</p> <p>T: 직원1은 공지를 하고 있어서 ‘합니다’를 사용했고, 직원3은 직원2보다 직급이 높아서 ‘해’를 썼는데 직원2는 신입이라 ‘해요’를 썼어요. 그럼 아래의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p> <p><A와 B는 이사이다. C는 대리이다. 세 명은 회사에서 회의할 때나 개인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곤 한다.></p>	10	자 료	
마 무 리	<p>- 활용 단계에서 학생들이 만든 대화를 평가</p> <p>T: 오늘은 우리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활용해서 ‘합니다’, ‘해요’를 공부했어요. 한국어 공부에 한국 드라마가 일상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많이 보고 들어보세요.</p> <p>- 다음 시간 학습 내용 예고</p>	5 분		

[표 10]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3차시 예시 교안

지금까지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활용하여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을 위한 교안을 작성하였다.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상대높임법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

교안 작성 과정에서 드라마 속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높임법의 다양한 사용 사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접근이 학습자의 실생활에 밀접한 언어적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은 상황 선정에서의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의사소통의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드라마를 통한 상대높임법 교육은 그 효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베트남어 상대높임법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상대높임법의 사용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소들 —화자와 청자의 나이, 지위, 친밀성 등— 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높임법의 분석을 통해 현재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 상대높임법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드라마를 활용한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국 드라마는 한국어 상대높임법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매체로, 학습자들이 상대높임법을 간접적으로 습득하는 한편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본 연구는 드라마를 통한 상대높임법 교수·학습이 전통적인 교재 중심 교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적절한 상황과 주제 설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드라마 속 인물 관계를 분석할 때, 주로 가족관계(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와 사회적 관계(상하관계, 친구 관계, 동료 관계 등)를 기준으로 삼았다. 상대높임법은 화자와 청자의 나이, 지위, 친밀도 등 사회적 요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드라마를 통한 상황별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공식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나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반드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사적 상황에서는 친밀도에 따라 상대높임법의 사용이 달라질 수 있다. 친밀도가 높은 경우, 청자가 화자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더라도 화자가 청자에게 낮춤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교재에서는 상대높임법을 단순한 문법적 규칙으로 다루고 있어,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의 높임법 사용을 어려워하는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본 연구는 드라마를 활용하여, 실생활에서의 상대높임법 사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세 차시로 나뉘어 진행되며, 학습자들이 교재에서 배운 상대높임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은 한국어 상대높임법 개념 및 특징을 복습하고 드라마 소개, 한국어 상대높임법 ‘해요’, ‘해’와 ‘해라’의 사용과 한국어 상대높임법 ‘합니다’, ‘해요’의 사용 등으로 3차시 수업을 구성하며, 각 차시는 50분 동안 진행된다.

한국어 상대높임법은 한국어와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중요한 요소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문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및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사용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언어학적 접근을 통해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실제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드라마를 활용한 교육은 실제 언어 사용의 맥락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교재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드라마를 활용한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은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 방안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험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실현 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고원. (2017). “한국 드라마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사.
- 국립국어원. (2011). 『표준 언어 예절』. 서울: 국립국어원.
- 귀창. (2020).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선영. (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높임법 지도 방안 연구”. 공주대 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성월. (2012). “현대국어의 상대경어법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성월. 『한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 역락.
- 김인석. (1987). “시청각 교육방법과 실제에 대한 연구 : 아동부를 중심으로”, 『論文集』, Vol.15 No.-[1987], 147-169(23쪽).
- 김태엽. (1998).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서울: 대구대학교출판부.
- 김혜련. (2009).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공손 표현 오류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혜숙. (2005) 『우리 말글 교육의 모습과 쓰임』. 서울: 월인.
- 남기심, 고영근. (2011). 『표준국어문법론』. 338p, 서울: 탑출판사.
- 동정정. (2018). “한·중 높임법 대응 연구: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중국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문아. (2015). “한국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방안 연구: 상대 높임 표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신영. (2022).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 연구: 상황맥락 요인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영순. (1979). 사회언어학이 언어학이론에 미치는 영향. 「언어과학연구」,

제81권, pp 149-150

박영순. (2004). 『한국어의 사회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박지순. (2014). 한국어 상대높임법 실현의 영향 요인 연구. 『세국어교육』, 제98호, 290-324.

박지순. (2022). 한국어 교재의 상대높임법 분석. 『반교어문연구』, 60, 231-236.

방티타잉튀. (2010). “베트남인의 한국 드라마 시청이 국가 이미지 인식과 호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서상준. (1996). 『현대국어의 상대높임법』.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송덕유. (2016). “역할극을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학협동과정 석사 학위논문

심선애. (2015). “TV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중심 한국어 통합 교육 방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안경환. (2002). 베트남어의 경어법과 문화 속성에 대한 연구. 『언어학』, 제21호, 238-259.

안주호. (2022). 최근 한국어 높임법 사용과 변화 양상. 『동악어문학』, 제86집, 121-143.

이서란. (2002). 현대국어 상대경어법 등급 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이은희. (2010). 문법 교육: 한국어 높임법 교육 내용 연구. 『한국어와 문학』. vol 13, pp 280-315.

이정복. (2006).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경기도: 태학사.

이정복. (2006). 『국어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서울: 국어학회, 제47호, pp 407-448, 542.

이정복. (2012). 『한국어 경어법의 기능과 사용 원리』. 서울: 소통.

이희성. (2009).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 조사 및 역할극을 활용한 교수-학습 전략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임미경. (2013).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친족 내 한국어 경어법 오유 양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임지아. (2006). “의사소통적 교수법에 의한 한국어 교육 방법론.”, 『동남어 문논집』, Vol.22 No.-[2006], 181-211(31쪽)
- 전지수. (2006). “드라마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방법 연구.”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정양미. (2001). “의사소통 교수법에 대한 영어교사들의 인식도”, 『論文集』, Vol.29 No.1[2001], 413-437(25쪽)
- 정지호. (2013).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전 티 하이 하. (2015).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높임법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타이, 페이지. (2018). “드라마를 통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 부산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팜티타잉튀. (2010). “베트남인의 한국 드라마 시청이 국가 이미지 인식과 호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한신신. (2013).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 방안 연구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황원. (2017). “한국 드라마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Ho Dac Quynh Trang. (2017). “한국어 높임법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Nguyen Thai Hoang Linh. (2022).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Nguyen Thi Phuong. (202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높임 표현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KLF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Trinh Kieu My. (2023). “한국어 공어법 교육을 위한 교재 연구: 베트남 학습자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 국외 문헌

- Diệp Quang Ban. (2004). 『Ngữ pháp Tiếng Việt』 (베트남어 문법). Nxb Giáo dục.
- Lê Hoàng Giang. (2010). Cách dùng đại từ nhân xưng của thầy và trò trong nhà trường Việt Nam (베트남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의 대명사 사용법). Trung tâm Nghiên cứu Giáo dục Phổ thông – Viện Nghiên cứu Giáo dục, Trường ĐHSP Thành phố HCM.
- Nguyễn Tài Cẩn. (1996). 『Ngữ pháp Tiếng Việt』 (베트남어 문법). Nhà xuất bản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하노이 국립 대학교 출판부).
- Nguyễn Thiện Giáp. (2008). 『Giáo trình ngôn ngữ học』 (언어학 교재). Nxb ĐHQG Hà Nội.
- Nguyễn Thị Thủy. (2009). Xin lỗi, Cảm ơn – Biểu hiện của phép lịch sự trong văn hóa ứng xử người Việt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베트남 행동 문화에서 공손한 표현), Trường Đại học Vinh (Vinh 대학교).
- Phạm Thị Ngọc. (2018). Kính ngữ tiếng Hàn và các phương tiện biểu hiện tương đương trong tiếng Việt (한국어의 경어 및 베트남어의 대응 표현). Luận án Tiến sĩ Ngôn ngữ học (박사학위논문), Viện Hàn lâm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 Học viện Khoa học Xã hội (베트남 사회 과학 아카데미 – 사회 과학 아카데미).
- Ta Thi Thanh Tam. (2009). 『Lịch Sử Trong Giao Tiếp Tiếng Việt』 Nhà xuất bản tổng hợp TP. Hồ Chí Minh.
- Vu Thi Thanh Hương. (2002). 『Khái niệm thể diện và ý nghĩa đối với việc nghiên cứu ứng xử lịch sử』. Tạp chí nông ngư. số 1. trang 8-14.

부록

〈설문지〉

한국어 중급 단계 베트남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을 위한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응웬티응옥후엔입니다. 본 설문지는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을 설문지입니다. 설문지의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만으로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8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응웬티응옥후엔

1) 개인 정보 관련 문항

1. 성별: 남/여

2. 나이

3. 한국어 능력 몇 급입니까?

a. Topik 3

b. Topik 4

c. Topik 5

d. Topik 6

4.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a. 한국에 있는 대학교 어학당

b. 베트남에 있는 대학교

c. 베트남에 있는 한국어학원

5. 한국어를 얼마 동안 배웠습니까?

- a. 2년 이하
- b. 2년 이상

2)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

1. 한국인과 이야기할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까?

- a. 잘 사용해요
- b. 사용하는데 어색해요

2. 한국어 높임법은 객체높임법,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이 있는데 3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습니까?

- a. 구분할 수 있어요
- b. 구분할 수 없어요

3. 아래 문장에서 높임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찾으세요.

3.1 주체높임법

- a. 동생이 집에 왔다
- b.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다

3.2 객체높임법

- a.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다
- b. 아버지께 과자를 드렸다

3.3 상대높임법

- a.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 b. 미주야, 부탁이 있어

4. 상대높임법을 잘 알고 있습니까?

- a. 잘 안다
- b. 조금 안다
- c. 모른다

5. 상대높임법이 어려운 이유 무엇입니까?

- a. 문법
- b. 어렵지 않은데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는 헛갈린다

6. 상대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안 높여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문장을 보고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 a. 내일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 b. 오늘 늦게까지 수업했네요
- c. 괜찮아. 나는 말짱해
- d. 밥 먹고 공부 좀 해라

7) 상대높임법의 표현을 잘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합니까?

- a. 잘 알아요
- b. 잘 알지 못해요
- c. 전혀 몰라요

8) 아래 상황과 같은 대화할 때 적절한 답을 찾으세요.

8.1 병원에서 30대 의사와 60대 환자

의사: 어디 아프세요?

환자:

- a. 허리가 아픉니다
- b. 허리가 아파요
- c. 허리가 아파

8.2 회사에서 30대 차장과 50대 과장

차장: 오늘 회의 했어요?

과장:

a. 오늘 회의했습니다

b. 오늘 회의했어요

c. 오늘 회의했어

8.3 집에서 엄마와 딸

엄마: 밥 먹었어?

딸:

a. 네, 저는 먹었습니다

b. 네, 저는 먹었어요

c. 네, 나는 먹었어

8.4 식당에서 교수와 학생

교수:

학생: 치킨을 먹을래요?

a. 뭐 먹습니까?

b. 뭐 먹을래요?

c. 뭐 먹을래?

8.5 강의실에서 발표할 때 교수와 학생

교수:

학생: 없습니다

a.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b.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c.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어?

3) 한국어 높임법 학습 경험

1. 무슨 교재로 한국어를 배웠어요?

a.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b. 재미있는 한국어

c. 서울대 한국어

d. 기타 :....

4)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1.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a. 네
- b. 아니요

2. 4개 드라마 중 최근에 무슨 드라마를 봤습니까?

- a. 눈물의 여왕
- b. 돌풍
- c. 스위트홈 3
- d. 선재 업고 튀어



ABSTRACT

A study on Traching Method of Korean hearer
honorification using drama
– Focusing on intermediate Vietnamese learners –

Nguyen, Thi Ngoc Huye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educational strategy for teaching intermediate Vietnamese learners Korean speech level (honorifics) through Korean dramas. The speech level system, which requires students to choose suitable expressions and reflects the social relationships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is a crucial grammatical component of Korean language instruction. However, because Korean and Vietnamese have different grammar and sociocultural norms, Vietnamese learners find it extremely difficult to acquire Korean speech levels. This study investigate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at use Korean dramas in order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Chapter 2,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tudy's theoretical foundation.

In addition to defining and classifying Korean speech levels, it examines important teaching elements for foreign language learners. This chapter highlights how social contexts and pragmatic components are included in speech levels that go beyond grammatical rules. The chapter also explores the benefits and features of using dramas as language teaching tools, emphasizing how they can realistically depict social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which enhances comprehension and engages students.

Chapter 3, the speech levels in Korean and Vietnamese are contrasted. While Korean uses sentence-ending particles that consider the speaker-listener relationship, age, and social status, Vietnamese uses pronouns, verbs, and lexical variations to convey speech levels. This chapter compares and contrasts the two languages' speech level systems and looks at the difficulties Vietnamese learners encounter in light of these variations.

Chapter 4, examines how Vietnamese intermediate learners perceive Korean speech levels. The results show that learners frequently make mistakes because they don't comprehend Korean sociocultural contexts and how to employ speech levels pragmatically. Additionally, they have trouble choosing suitable sentence-ending structures according to the status and age of the listener. To overcome these obstacles, the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methodical training and frequent practice in authentic situations.

Chapter 5, a method for teaching speech levels through Korean plays is suggested. Dramas give students real-world conversational situations, which promotes the organic development of speech levels. In order to provide a variety of instances of speech level usage, this study examines dialogue from well-known Korean operas in Vietnam. A lesson plan with phases including introduction, presentation, practice, application, and conclusion is proposed in light of these findings. The concept helps

students to use appropriate speech levels based on their analysis of the social ties between characters in dramas.

Finally, the study presents a summary of its findings and admits its limitations.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honorifics, Vietnamese honorifics, relative honorifics, educational methods, education using dramas

